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31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9월 9일

프라보워 대통령, '전 국민 1인 1계좌' 전격 지시
금융 포용성 확대·복지 혁신 노린다

- 7일 메르데카궁서 마라톤 각료회의… 금융감독원 · 중앙통계청 조사 토대로 정책 추진
- BRI · BSI 등 주요 국영 · 이슬람 은행 주도… 인구 데이터(Dukcapil) 및 QRIS 연계
-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 "금융 이해력 69.57%, OECD 상회… 정부 지원금 직접 입금 체계 구축할 것"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가 금융 인프라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 보유를 전면 의무화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국가적 차원의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대폭 신장하고 국민 전반의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지난 2026년 9월 7일(월)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소집된 비공개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당일 회의는 서부 인도네시아 표준시(WIB) 기준 오후 3시 30분경에 개회되어 오후 7시를 넘겨 종료될 정도로, 국가 금융 체제 재편을 둘러싼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약 3시간 30분간 이어졌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 보유를 전면 의무화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2026년 9월 7일(월)

■ 범정부 관료 및 5대 은행 수장 총출동… 범국가적 역량 결집

이날 메르데카궁 회의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산업·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집결해 정책의 무게감을 드러냈다. 내각에서는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비롯해 줄키플리 하산 식량조정장관, 국가투자운용기구인 다난타라(Danantara)의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는 로산 페르카사 로에슬라니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청(BKPM) 청장이 자리했다.

이어 라흐마트 팜부디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겸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청장,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정주지역부 장관, 안디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 디딧 헤르디아완 아샤프 해양수산부 차관 겸 자바 북부 해안 관리청장이 배석했다. 행정 및 통계 부문에서는 도니 오스카리아 국영기업관리청장 겸 다난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 통계청(BPS) 청장이 참석해 실무적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을 담당할 주요 은행권 수장들이 총동원되었다. 헤리 구나르디 인도네시아민중은행(BRI) 은행장, 리두안 만디리은행 은행장, 푸트라마 와휴 세티아완 인도네시아국가은행(BNI) 은행장, 닉슨 LP 나피투풀루 국가주택은행(BTN) 은행장, 앙고로 에코 차효 인도네시아샤리아은행(BSI) 은행장 등 국영 및 특수 은행권 최고경영진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 장관,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 푸아드 바와지르 전 재무부 장관, 하시임 조요하디쿠수모 에너지·기후 특사 등이 회의를 지켰다.

■ BRI·BSI 중심 개설 지원… Dukcapil 데이터 및 QRIS 결제망 전면 접목

회의 직후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화요일(8일) 국가궁 복합단지에서 가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앞서 대통령께서 전 국민이 당좌(은행) 계좌를 보유하도록 명확히 지시하셨다"며 "이에 발맞추어 서민 금융망이 두터운 BRI와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기관인 BSI를 필두로 대국민 전용 계좌 개설 작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이를랑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내무부 주민등록시민등록총국(Dukcapil)의 고유 인구 식별 데이터를 전면 활용해 물리적·절차적 문턱을 대폭 낮춘 간소화된 계좌 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축적된 행정 데이터는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의 전산망, 특히 결제 게이트웨이 시스템과 실시간 대조·연계된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급결제 시스템 및 게이트웨이 시스템 전반에 신속히 안착될 것이며, 범용 국가 표준 결제 코드인 QRIS(Quick Response Code Indonesian Standard)를 핵심 매개체로 활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촌 및 도서 지역 주민들까지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 편입시키겠다는 전략적 복안이다.

■ 금융 이해력 69.57%로 OECD 기준 상회… 복지 지원금 '직접 지급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이번 정책적 결단은 최근 수치화된 인도네시아의 고무적인 금융 지표에 기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OJK)과 중앙통계청(BPS)이 공동 조사한 국가 금융 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금융 포용률은 93.62%에 달하며, 금융 이해력 역시 69.57%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의 수준을 웃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OECD의 평균 금융 이해력 기준이 약 63%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가 기록한 69.57%는 대단히 양호한 수치"라며 "이미 구축된 긍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금융 역량을 한 단계 더 최적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근본 취지"라고 역설했다.

'전 국민 계좌 보유'의 직접적 종착지는 국가 복지 및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 기본소득 성격의 사회 지원금, 재난 지원 체계 등을 중간 전달 경로 없이 수혜자의 개인 은행 계좌로 '다이렉트 입금'하는 방식을 제도화하겠다고 단언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전 국민 계좌 보급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보조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 누수와 부정 수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비공식 금융(사금융)에 의존하던 저소득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시켜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프라보워 대통령,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 참석… “러시아와 원자력·첨단기술 협력 강화”

- 블라디보스토크서 러 · 인니 정상회담 개최… ‘국민 번영 위한 극동 개발’ 논의
- 푸틴 대통령 “인니는 아태지역 핵심 파트너… 양국 교역액 전년 대비 12% 증가”
- 프라보워 대통령 “반세기 넘는 유대 바탕으로 해양 · 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기념 사진. 2026년 9월 3일(목)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원자력 에너지와 첨단 기술, 해양 산업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對)러시아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9월 3일(목), ‘국민의 번영을 위한 극동 개발(Far East: Development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을 주제로 개막한 제11차 EEF 본회의 세션에 아시아 각국 정상 및 고위급 관료들과 함께 자리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에너지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전략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 결실”

본회의 개회 연설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대면 만남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공고함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 공식 유튜브 채널 중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성사된 정상 간 접촉”이라며 “정상 간의 빈번한 소통은 양국 관계가 지닌 전략적 깊이와 특수성을 대변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내 러시아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규정했다. 특히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12% 성장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공식화된 만큼 향후 경제 교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차세대 핵심 의제로 원자력과 첨단 기술을 지목했다. 그는 “양자 공동위원회를 통해 농업과 식량 안보, 조선 및 해양 산업, 디지털 첨단 기술은 물론, 원자력 에너지를 필두로 한 전략적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인도네시아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 샀다.

프라보워 대통령 “50년 넘는 역사적 유대… 태평양 잇는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구축”

프라보워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관계의 질적 도약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6월 러시아 국경일(6월 12일)과 제35차 러시아-아세안 기념 정상회의(6월 18일)에 국내 주요 현안으로 불참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당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한다. 오늘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함으로써 마음의 빚을 갚게 되었다”고 밝혀 회담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의 주요 골자로 5개 10년(50여 년) 이상 축적된 양국의 외교적 자산을 꼽았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는 반세기가 넘는 깊은 역사적 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자 관계가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것은 양국 모두에 크나큰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위치에 기반한 ‘태평양 해양 연결성’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는 모두 태평양에 접한 국가들”이라며 “대표적인 군도(群島)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있어 해양 인프라 및 물류 연결성 확대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이며, 러시아와의 협업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통상 지표의 호조세에 발맞추어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전 등 미래 지향적 사업을 적극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양국의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EEF 2026 회담을 계기로 전통적 비동맹 중립 노선을 표방해 온 인도네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극동-동남아 해상 물류망 연계 등 대러 실리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아세안의 맹주 인도네시아와 극동 개발을 가속화하는 러시아 간의 밀착 행보가 향후 아태지역 지정학 및 에너지 공급망 지형에 미칠 파급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EAEU FTA 2027년 발효 목표… 프라보워 “러시아와 교역 2배로 확대”

-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연설서 ‘양국 교역 100억 달러’ 청사진 제시
- 90% 이상 품목 관세 인하 · 철폐… 인니, ASEAN 진출 ‘관문’ 역할 강조
- 직항 해운 · 항공 노선 개설 및 에너지 · 식량 등 다각적 협력 촉구



프라보워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 연설 (3/9/2026). (YouTube/Sekretariat)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자유무역협정(I-EAEU FTA)이 오는 2027년 초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 연설을 통해 “I-EAEU FTA의 첫 이행 검토 기간 동안 양국 간 교역액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50억 달러(약 88조 2,8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7%, 2023년 대비 33.7% 급증한 수치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제시한 ‘교역 2배 확대’가 실현될 경우 양국 교역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는 “양국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EAEU와 인도네시아 간 FTA는 지난 2025년 12월 서명된 뒤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교역 품목의 90% 이상에 달하는 1만 1,882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이를 통해 EAEU 회원국은 2억 9,000만 명 규모의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인도네시아는 유라시아 전역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특히 인도네시아를 유라시아 기업들이 6억 8,000만 명 규모의 아세안(ASEAN)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관문’으로 규정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심축인 인도네시아의 팜유·고무·수산물 등 원자재 및 소비재와 러시아의 밀·비료·에너지·기술력이 결합하면 지속 가능한 상호 보완적 무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관세 장벽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인도네시아를 직접 잇는 직항 해운 노선 구축과 직항 항공편 개설을 촉구하며 “선박은 화물을 운반하고, 항공기는 양국 간 우정을 이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협력의 외연은 제조업 및 자원 분야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가스 탐사 개발, 신재생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이용뿐만 아니라 농업 기계화, 비료 합작 생산 등 식량·에너지 안보 전반에 걸친 공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인도네시아로 와서 함께 공장을 짓고 산업을 일으키자”고 러시아 기업인들에게 투자를 당부한 뒤, “직항로 개설과 FTA의 즉각적인 가동을 통해 양국 교역을 반드시 두 배로 늘리자”고 거듭 역설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대통령, EEF서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노선 재확인

- 블라디보스토크 제11차 동방경제포럼 주빈 참석… "특정 블록 치우치지 않아"
- "1천 명의 친구도 적고, 1명의 적도 많다"… 실리 중심의 전방위 협력 강조

[블라디보스토크=외신종합]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파편화되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고유의 '자유롭고 적극적인(Bebas dan Aktif)' 외교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주요 주빈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되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정부 고위 관료,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요 연사로 단상에 올랐다.

기조연설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대외 노선이 특정 군사동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새로운 대립 블록이 아니며, 공정한 번영과 글로벌 규범 제정에서의 동등한 발언권을 요구하는 정의의 연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다"며 "분쟁 지역 어디서든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비동맹 중립 노선이 결코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국익을 스스로 결정하며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주권적이고 평등한 파트너로서 동·서·남·북 전 방위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1,000명의 친구도 너무 적고, 단 1명의 적도 너무 많다"는 격언을 인용해 실리 중심의 포용적 외교관을 피력했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오랜 우호 관계가 양국 국민에게 가시적인 혜택을 주는 실질적 경제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정은 단지 역사 속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현세대는 실질적인 결실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식량 안보, 일자리 창출, 무역 개방 등을 제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에서 푸틴 대통령과 토론. (3/9/2026). (Foto: BPMI Setpres)

연설 중 러시아 속담인 '홀로 싸우는 자는 전사가 아니다'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상호부조 정신인 '고통 로용(Gotong Royong)'을 함께 언급한 그는 양국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해상 및 항공 직항로 개설, 자유무역협정(FTA) 최적화, 교역 및 공동 생산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다난타라)과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간의 전략 프로젝트 공동 투자를 공식 제안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타인들이 벽을 쌓을 때 우리는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로 이번 포럼이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논의된 합의들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결실을 맺기를 당부하며 연설을 맺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대통령, Danantara-RDIF 통한 러·인니 투자 협력 촉진 촉구

- "단순 탐색 넘어 실질적·상업성 있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로 나아가야"
- 동방경제포럼(EEF)서 구체적 이행 지표와 금융 연계 강조

[블라디보스토크=외신종합]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국 신규 국부펀드인 '다난타라(Danantara)'와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투자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단순한 가능성 타진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성을 갖춘 전략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로 직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에 주요 외빈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 연설 (3/9/2026). (YouTube/Sekretariat)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 출범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약 1조 달러(한화 약 1,350조 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갖춘 다난타라가 양국 자본시장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다난타라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목표가 만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양국 국부펀드 간의 파트너십은 투자 기회를 식별하는 탐색 단계를 넘어 은행 대출 및 투자가 가능한 '상업적 프로젝트(Bankable projects)'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체결된 양해각서(MOU) 수준의 선언적 합의에서 벗어나, 즉각 실행 가능한 대형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투자 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명확한 성과 기준과 점검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그는 "발표되는 모든 양국 협정에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와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명확한 완료 단계(마일스톤)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이행 지표가 명확해질 때 금융기관과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후속 투자가 뒤따를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 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러시아와의 협력이 자원 개발, 에너지 인프라 등 실행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 Vitamin B1 ⚡ Vitamin B6 ⚡ Vitamin B12 ⚡ Mengandung Taurin (83 mg / 250 ml)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HALAL INDONESIA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인니 자카르타 수도권 3개 공항 운항 나흘 만에 전면 재개… 한인사회·기업 비즈니스 숨통 열어

- 수카르노-하타 · 할림 ·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공항, 8일 00시 기해 정상화
-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 여파 일단락… 공항 당국 "탑승 전 일정 재확인 당부"
- 한인사회 · 기업 비즈니스 숨통… 수도권 대기 중 잔류 화산재에 따른 호흡기 건강 유의 필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위치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폭발적 분화로 전면 폐쇄됐던 자카르타 수도권 및 인근 주요 관문 공항들의 항공편 운항이 나흘 만에 전면 재개되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공항 운영 당국에 따르면, 반뜬주 땅그랑 소재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CGK)을 비롯해 동부 자카르타의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항(HLP), 서부자바주 반둥의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공항(BDO) 등 화산재 직격탄을 맞았던 주요 공항 3곳의 운영이 2026년 9월 8일(화) 00시 00분(서부인도네시아 표준시, WIB)을 기해 일제히 정상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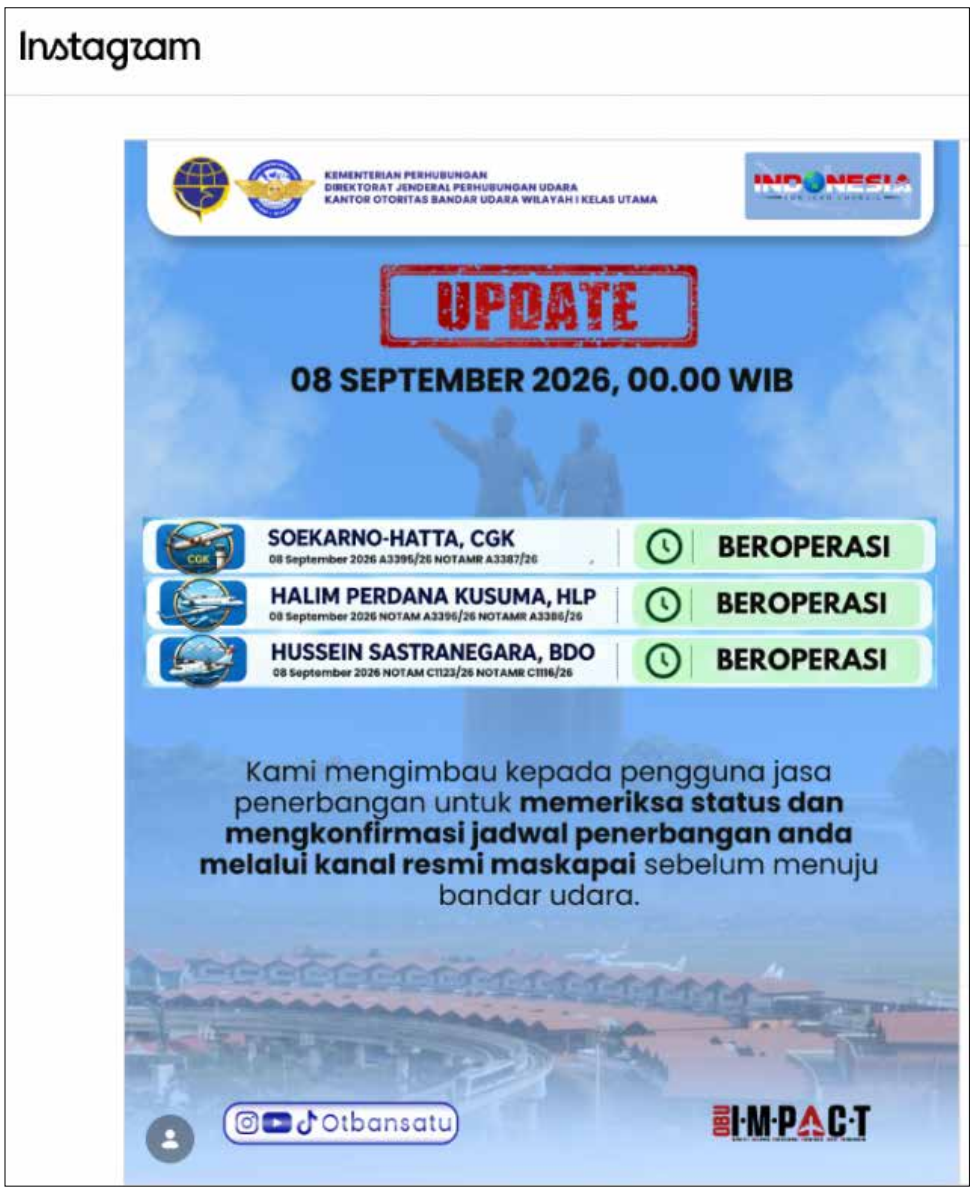
◇ 당국, "운항 여건 회복 확인… 공항 이동 전 공식 일정 확인 필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유디스티아완(Yudistiawan) 통신 및 법무 부차장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람을 통해 공식 성명을 내고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최근 분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항의 여객 수송 및 항공편 운항이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며칠간 이어진 대규모 결항 사태로 항공기 재배치 및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유디스티아완 부차장은 "모든 공항 이용객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반드시 이용 항공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본인의 항공편 운항 상태와 변경된 일정을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공항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는 인저니 에어포트(InJourney Airports) 고객센터(172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도심형 공항인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항 역시 같은 시각을 기해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할림 공항은 활주로 및 상공의 안전성 확보 문제로 인해 7일(월) 23시 59분까지 폐쇄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카르노-하타 제1구역 주요 등급 공항청(@otbansatu)과 인도네시아 교통부(@kemenhub51)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영향을 받았던 3개 공항의 운영이 8일 0시부로 전면 재개되었으며, 현행 규정 및 항공 안전 기준에 부합하여 운항이 재개되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당국은 장기간의 운항 차질을 인내해 준 승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안전한 여정을 기원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공항 운영 당국은 수도권 3대 공항 개장 공지.2026.9.8

◇ 한인사회·진출기업 "물류·출장 숨통"… 수도권 잔류 화산재 주의보

자카르타 수도권의 하늘길이 나흘 만에 다시 열리면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진출 기업과 여행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며칠간 이어진 공항 폐쇄로 인해 한국-인도네시아 간 비즈니스 출장이 무더기로 취소·연기되고, 항공 화물을 통한 긴급 부품 및 원자재 입출고가 전면 중단되는 등 막대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자카르타 본사와 지방 공장 간의 이동은 물론 해외 바이어 및 관광객의 발이 묶이며 한인동포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공항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봉제, 신발, 전자 등 주요 제조업체들의 긴급 원자재 수급과 바이어 미팅, 상사 주재원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점차 정상 궤도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항공기 운항 재개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보건 위생에는 여전히 비상이 걸려 있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 당시 상공으로 분출된 대규모 화산재가 여전히 자카르타 및 수도권 일대 대기 중에 미세입자 형태로 잔류해 있기 때문이다.

기상 및 보건 당국 관계자는 "상공의 가시거리 확보로 항공 운항은 가능해졌으나, 지표면 인근의 대기질은 여전히 미세 화산재로 인해 취약한 상태"라며 "야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당분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로 인해 자카르타 수도권 지역 태양빛이 붉게 물들고 있다. 2026.9.7. 사진 독자제공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인니 산림부 장관, 칼리만탄 산불 연기 유입 논란에 "연기에는 신분증 없어"… 책임 회피는 일축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의 산림·토지 화재(karhutla)로 발생한 연무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라자 줄리 안토니(Raja Juli Antoni)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은 1일(현지 시간) 산림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월경성 연무(transboundary haze)'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라자 줄리 장관은 산불 연기의 확산은 주로 풍향에 의해 결정된다며 "연기에는 주민등록증(KTP)이 없다"라는 비유를 들어 연무의 국경 간 이동이 불가피한 자연 현상임을 언급했다.

그는 산림 화재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접국에서도 자체적인 산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을 뒤덮은 연무가 해당 국가 내부의 화재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라자 줄리 장관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사례를 들며 "자국 산불 감시 시스템인 '시퐁기(SiPongi)' 화면에 잡히지 않더라도 주변국인 사라왁 등지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풍향이 위쪽(북쪽)으로 향하고 있어 연기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 만약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뀐다면 사라왁의 화재 연기가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라자 줄리 장관은 이러한 설명이 정부의 책임 회피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국경을 넘는 연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진화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자 줄리 장관은 "산림 화재 대응에 있어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시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안전"이라며 "군(TNI), 경찰(Polri), 전문 산불진화대(Manggala Agni)가 현장에서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주체로서 화재를 적극 통제해 이웃 국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자 줄리 안토니(Raja Juli Antoni)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 Menteri Kehutanan (Menhut) Raja Juli Antoni. (Foto: YouTube @Kemenhut_RI)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대통령, 연쇄 재난 대응 회의 주재… "재난 완화 예산 대폭 증액해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재난 완화 예산의 대폭 증액을 지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9월 7일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화상 제한회의를 열어 산림 및 토지 화재(karhutla), 플로레스 지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 등 최근 발생한 주요 재난 상황을 점검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Ring of Fire)'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분화, 산불 및 연무 피해가 상존한다"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인 만큼, 국가 차원의 강력한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잇따른 재난을 교훈 삼아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사무부와 재무부,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등 관계 부처에 재난 완화 예산의 대규모 증액과 포괄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소 필요량을 상회하는 자원 확보 원칙을 제시했다. 헬리콥터, 고압 펌프, 소방차 등 핵심 진화 장비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산불 다발 지역의 마을 단위에는 소형 굴착기를 사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군 자산을 재난 대응에 투입하는 구상도 구체화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탈리아로부터 도입 예정인 해군 항공모함을 개조해 헬리콥터와 드론 운용 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함정은 회당 4~5톤의 담수가 가능한 중형 헬기를 최대 10대까지 탑재해 공중 화재 진압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국가연구혁신청(BRIN)과 협력해 기상 조절 물질을 고도화하고, 항공기를 통한 인공강우 작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마트라, 아체 등 최근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대응 역량은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재난 극복에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닥칠 어떠한 재난에도 훨씬 이전부터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한·미·일 군, 인도네시아군과 '정글 생존·저격 훈련' 실시… 다국적 연합작전 역량 강화

한국과 미국, 일본 군 장병들이 인도네시아군(TNI)과 함께 밀림 생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글 생존(Jungle Survival)'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군 장병들이 인도네시아군(TNI)과 함께 밀림 생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글 생존(Jungle Survival)' 훈련 실시, (3/9/2026). (Foto: Dok. Mabes TNI)

인도네시아군 공보국(Puspen TNI)에 따르면, 훈련에 참가한 연합 병력은 지난 3일 람풍주 페사와란 뜰룩 판단 일대에서 정글 내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을 연마했다. 이번 훈련은 다국적 연합합동훈련인 '2026 슈퍼 가루다 실드(Super Garuda Shield·SGS)'의 주요 과목 중 하나로 진행됐다.

인도네시아군 공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글 생존 훈련은 자연 자원 활용법, 지형 숙지, 기초 생존 기술 습득을 통해 열악한 밀림 환경에서도 생존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연합 병력은 같은 장소에서 정밀 타격을 위한 저격(스나이퍼) 사격 훈련도 병행했다. 정밀 타격 전투 상황에서 필수적인 사격 정확도와 고도의 집중력, 인내심, 자기 통제력을 집중적으로 숙달했다. 훈련 과정은 엄격한 안전 수칙 준수 하에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국방 외교 역량을 다지고 국가 간 군사 지식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군 공보국은 "이번 활동이 군사 역량을 현대화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아구스 수비얀토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대장)은 앞서 8월 31일 서자바주 반둥에서 "올해 슈퍼 가루다 실드는 총 21개국 4,743명의 병력이 참가해 12개 훈련 과목을 수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해 주최국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21개국이 참여해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2026 슈퍼 가루다 실드 훈련은 반둥, 자카르타, 람풍, 남수마트라 바투라자 육군전투훈련센터, 북칼리만탄 누누칸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분산 실시되며, 오는 9월 11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화산 폭발 여파로 피해 지역 공무원 최대 100% 재택근무 허용…노동부 “검토중”

중앙정부, 반텐 · 람풍 · 자카르타 등 지방정부와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노동부 “재택근무 검토중” 민간 근로자 재택근무 관련 현재까지 공식 공지 사항 없어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 화산의 대규모 폭발로 인해 인도네시아 피해 지역의 공무원들이 상황에 따라 최대 100%까지 재택근무(WFH)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반 근로자들을 관할하는 노동부는 검토중이리고 하면서 민간 부문의 재택근무 전환과 관련해 05시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이나 공지 사항이 내려지지 않았다.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지난 6일(일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화산재 등의 영향권에 든 지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 지침을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는 반텐주, 람풍주, 서자바주, 자카르타 수도권, 남수마트라주 등 화산 폭발 영향권에 있는 주요 지방 정부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티토 장관은 “우리는 항상 피해 규모와 위험성에 따라 반텐주를 시작으로 람풍, 서자바, 자카르타, 남수마트라 등 각 지방 정부와 순차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Menteri Dalam Negeri, Tito Karnavian. (Foto: Tangkapan Layar YouTube DPR)

시·군 단위 자율적 판단… 보건·안전 위협 시 재택근무 도입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히 일선 시·군(District/City)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와 유해가스 등이 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보건 및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서자바주는 전날 산하 시·군 정부에 화산재 피해 대비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티토 장관은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육 및 학습 과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활동과 공공서비스 부문은 위험을 완화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비상사태로 격상될 경우에는 교통 시스템 및 기타 공공 인프라 운영에도 조정이 가해진다. 티토 장관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시스템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설 역시 조정 대상이 된다”며 “시·군 정부가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다고 판단하면 50% 또는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은 예외… “보건·소방·전력 등은 정상 근무”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티토 장관은 국가 행정의 공백을 막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필수 부문은 예외 없이 현장 근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 부문 종사자, 소방관, 전력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면서 “반면, 건강과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면서도 공공서비스 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일반 행정 업무 등의 경우 필요에 따라 75%에서 최대 100%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의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여부는 각 지역의 책임자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 일반 근로자 재택근무 지침, 현재까지 공지된 바 없어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택근무 허용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일반 기업과 민간 근로자들의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재택근무에 대해 공지가 없다.

노동부는 각 민간 사업장이 자체적인 안전 관리 계획과 보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강제적인 민간 WFH 명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유관 기관 공조 강화… “정확한 데이터 바탕으로 위험 수준 예의주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화산 폭발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지질재난방지청(BMKG), 국가재난방지청(BNPB), 지역재난관리청(BPBD), 그리고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화산지질재난방지센터(PVMBG) 등 유관 기관들과의 공조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티토 장관은 “BMKG와 같은 공식 기관의 예측조차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상황을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방 정부들에도 BMKG 및 BNPB, PVMBG 등 전문 기관과 상시 소통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산 및 지질 활동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PVMBG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들 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정부 행정 부문을 포함한 각 분야의 공중보건 및 공공안전 취약성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역설했다.

티토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 기관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갈무리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대통령, “동칼리만탄 산불, IKN 핵심 구역 확산 차단에 총력 다하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동칼리만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및 토지 화재(karhutla)와 관련해 강력한 경계 태세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신수도 누산타라(IKN) 정부 핵심 구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7일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화상 한정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 동누사 텡가라 지진 등 주요 재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을 비롯해 정부 기관장과 지자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회의에서 동칼리만탄 내 발화점 추이를 엄중히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IKN 인근의 화재를 면밀히 살펴야 하며, 불길이 신수도 핵심 구역까지 도달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 구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응 자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화 작업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하리안토 국가재난방지청(BNPB) 청장에게 인도네시아군(TNI)과 긴밀히 협력해 산불 진화 지원차 도착할 일본 자위대 함정과 치누크 헬리콥터의 최적 배치 위치를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BNPB에 따르면 현재 6개 주에 걸친 734.81헥타르 규모의 이탄지에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수하리안토 청장은 서칼리만탄, 남칼리만탄, 중부칼리만탄, 리아우, 남수마트라, 잠비 일대의 총 피해 면적 7만 2,008헥타르 가운데 7만 1,274.29헥타르에 대해 진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수하리안토 청장은 “지하로 불씨가 번지는 이탄지 화재 특성상 이미 불길을 잡은 곳에서도 잔불이 되살아나거나 새로운 발화점이 생겨나는 등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도 “민·관·군 합동 대응팀이 지상과 공중에서 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완전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요일, 신수도(IKN) 스파쿠(Sepaku) 지역에 속한 시민산림공원(Tahura)에서 거센 불길이 일어나 약 1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과 토지를 집어삼켰다. (1/9/2026 BPBD PPU)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BYD, 인도네시아 수방에 11조 7,000억 루피아 규모 전기차 생산 기지 준공… 동남아 전동화 허브 도약

- 126헥타르 부지, 연산 15만 대 규모… 도장·용접·조립 전 공정 현지화 구축
- 현지 인력 5,000명 우선 채용, 향후 2만 명 규모로 확대 전망
- 완성차 수입 의존 탈피…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 정조준

중국 최대 전기차(EV) 제조업체 비야디(BYD)가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수방에 대규모 신에너지차(NEV) 생산 기지를 공식 준공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현지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투자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수입 완성차(CBU)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 제조 생태계를 직접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BYD는 3일(현지 시각), 서부 자바주 수방군 소재 '수방 스마트폴리탄 산업단지(Subang Smartpolitan Industrial Park)'에서 대규모 신규 생산 시설 준공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 데디 물랴디 서부 자바 주지사, 토토두아 파사리부 투자 다운스트림부 차관 등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BYD 본사 및 현지 경영진이 대거 참석해 양국 산업 협력의 결실을 축하했다.

이번에 완공된 수방 공장은 총 11조 7,000억 루피아(약 1조 원 상당)의 막대한 투자금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다. 전체 부지 면적만 126헥타르에 달하며, 연간 최대 1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BYD는 이 공장을 다각적 생산 거점으로 삼고, 1단계 가동 모델로 현지 선호도가 높은 다목적차량(MPV) 및 엔트리급 모델인 'BYD M6 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계열의 'BYD M6 DM', 소형 크로스오버 'BYD Atto1' 등을 낙점해 양산에 돌입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공장 준공에 깊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BYD 모터 인도네시아의 생산 시설 준공은 단순한 신공장 개설을 넘어, 탄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 산업화 발전에 있어 새로운 희망과 기회의 탄생을 상징한다"며 국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BYD 측에 공식적인 감사를 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조 공정의 '완전 현지화'다. BYD는 단순 부품 조립(CKD) 단계를 넘어 차체 용접(Welding), 도장(Painting), 의장 및 최종 조립(Assembly)에 이르는 핵심 제조 전 과정을 수방 공장 내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품 현지화율(TKDN)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현지 공급망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가 목요일(2026년 9월 3일), 서자바주 수방군 수방 스마트폴리탄 산업단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내 첫 제조 시설을 공식 개소했다.

류쉐량(Liu Xueliang) BYD 수석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판매 부문 총괄은 "오늘은 BYD 인도네시아 공장을 공식 준공하는 뜻깊은 날이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전동화 전환 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진 순간"이라며 "126헥타르 부지에서 연간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꾼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장과 용접을 포함한 모든 생산 공정이 현지에서 직접 이뤄지며,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 역시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신뢰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BYD 측에 따르면 준공 현재 이미 5,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이 채용되어 생산 현장에 배치되었다. 향후 공장 가동률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최대 생산 역량에 도달할 경우, 누적 현지 채용 규모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류 부사장은 "현지 근로자들은 첨단 전기차 제조 기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직업윤리를 보여주고 있다"며 현지 인재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BYD의 공격적인 현지 생산 기지 확보는 가파른 현지 판매 성장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자동차공업협회(Gaikindo)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BYD의 도매 판매량(출하량 기준)은 2만 9,826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1만 6,427대) 대비 무려 81.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실제 소비자에게 인도된 소매 판매량 역시 2만 8,428대로, 전년(1만 6,532대) 동기 대비 72.0%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현지 공장 완공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시장 주도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성차 수입 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강력한 가격 경쟁력과 현지 맞춤형 라인업을 확보한 BYD가 기존 일본계 완성차 중심의 인도네시아 내연기관 시장을 전기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www.zimmoah.com



AIR CONSOLIDATION

Incheon
Los Angeles
Daily
2 times / week
Jaka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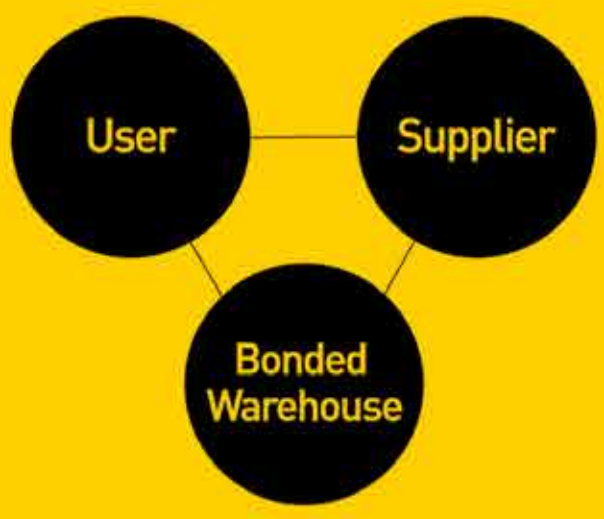
ZIMMOAH

Tel : +(62-21) 2936 5670 (ext 245)
E-mail : AIRcargo@zimmoah.com

LCL CONSOLIDATION



Bonded Warehouse
Biz Model



1. Trading Agency
2. Purchasing Agency
3. Consignment Agency

Tel : +(62-21) 2937 5670 (ext 231)
E-mail : LCLcargo@zimmoah.com

PT. RLC Indonesia

Direct : +(62)816 182 0317
E-mail : krchoi@rlc.co.id

ZIMMOAH

HEAD OFFICE
Kirana Commercial Avenue. Jl. Kirana Avenue 2 Blok D2 No. 10-11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21) 2937 5670 (Hunting) Fax : +(62-21) 2937 5671
E-mail : zimmoah@zimmoah.com www.zimmoah.com

BRANCH OFFICE

SEMARANG	+62 24 351 7198	semarang@zimmoah.com
AIRPORT	+62 21 5591 1853	aircargo@zimmoah.com
HOCHIMINH	+84 28 3776 0107	cargobuscm@cargobuslogitec.com
HANOI	+84 24 3221 6249	cargobushn@cargobuslogitec.com

IATA AIRLINES PARTNERS KOREAN AIR ASIANA AIRLINES Garuda Indonesia CHINA AIRLINES QANTAS ETIHAD AIRWAYS PARTNER Emirates

인니중앙은행 “QRIS 거래 150억 건·사용자 6,700만 명 돌파”… ‘국경 없는 결제’로 디지털 금융 영토 확장

- 2026년 7월 기준 가맹점 4,500만 개 육박… 금융 생태계 전반 장악
- 韓 · 日 · 中 등 6개국과 국경 간 결제 연동… 인바운드 결제액 5조 9,000억 루피아 기록
- 사우디 · 인도 등으로 외연 확장 본격화… ‘ BSPI 2030 ’ 기반 디지털 루피아 도입 박차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QR코드 결제 시스템인 ‘QRIS(Quick Response Code Indonesia Standard)’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자국 내 지배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아시아 전역을 잇는 국경 간 결제(Cross-border) 인프라로 도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최근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QRIS의 누적 거래량은 150억 건을 넘어섰으며, 이용자 수는 6,7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 가맹점 4,500만 개 달해… 견고한 민관 금융 인프라 협력망 구축

필리아닝시 헨다르타(Filianingsih Hendarta)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난 9월 7일 반다르람풍에서 열린 ‘람풍 파이낸셜 페스티벌 2026(Lampung Financial Festival 2026)’ 기조연설을 통해 QRIS의 눈부신 성과와 향후 청사진을 발표했다.

필리아닝시 부총재는 “현재 QRIS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는 4,500만 개에 달하며, 이는 웬만한 인접 국가의 전체 인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QRIS는 단순한 QR 결제 표준 도입을 넘어 국민들의 일상적 금융 거래 행태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급속한 외연 확장의 배경에는 탄탄한 금융 인프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중앙은행 집계에 따르면 현재 QRIS 생태계에는 96개 상업은행, 60개 핀테크 등 비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4개의 국가 스위칭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망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안방’ 벗어나 세계로… 한·중·일 등 6개국 연계 완료

특히 QRIS는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국제 결제망과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필리아닝시 부총재는 “QRIS는 이제 국내용 결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진화했다”고 천명했다.

현재 QRIS의 국경 간 결제 서비스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주요 6개국과 전면 연동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별도의 실물 지폐 환전(Money Changer) 절차 없이, 모바일 기기와 전자지갑 잔액만으로 현지 가맹점에서 손쉽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경 간 결제의 경제적 실효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QRIS를 통해 결제한 ‘인바운드(Inbound)’ 거래액은 5조 9,000억 루피아(약 3억 2,630만 달러)에 달했으며, 거래량은 1,976만 건을 기록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해외 연계국에서 QRIS를 이용한 ‘아웃바운드(Outbound)’ 거래액은 1조 7,300억 루피아(약 9,560만 달러), 거래량은 432만 건으로 집계되어 양방향 결제 흐름이 활발히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우디·인도 등 추가 확장 추진… 성지 순례객 환전 불편 해소 기대

중앙은행은 결제망 영토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BI는 홍콩, 동티모르, 인도와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집중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대 이슬람 인구국인 인도네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결제 연동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필리아닝시 부총재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연계가 성사되면 성지순례(하즈 및 움라)를 떠나는 수많은 국민들이 환전의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현지에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QRIS를 사용하는 소비자. (Foto: Istimewa)

◆ 2030년 디지털 거래 4배 급증 전망… ‘BSPI 2030’과 디지털 루피아로 선제 대응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자국의 디지털 금융 시장이 장기적인 초호황기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및 금융 거래량은 현재의 4배 수준인 1,473억 건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폭발적인 기술 혁신 흐름과 함께 두터운 청년층 인구, 높은 인터넷 보급률 등 우호적인 인구학적 보너스 효과에 기인한다.

필리아닝시 부총재는 “앞으로의 결제 기술은 지문·얼굴·음성 인식, 망막 스캔 등 생체 인증 기술이 보편화되는 등 극도의 소비자 중심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디지털 금융의 급진적 확산에 따른 보안 취약점과 금융 안정성 위험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존 ‘결제 시스템 청사진(BSPI) 2025’의 성과를 계승한 ‘BSPI 2030’ 체제를 가동 중이다. 해당 청사진은 ▲지급결제 인프라 고도화 ▲산업 규제 정비 ▲기술 혁신 촉진 ▲결제망 국제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루피아’ 개발 등 5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차세대 금융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이민국, BSD 건설 현장서 체류 자격 위반 중국인 55명 적발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amankan 55 WN Tiongkok yang diduga salah gunakan izin tinggal di BSD, Tangerang Selatan. Foto: Dok. Istimewa.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총국이 반텐주 남부 탕에랑 BSD 소재 ‘시나르 마스 플러스(SM+)’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프렌 갤러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체류 자격을 남용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55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총국은 사이버 순찰을 통해 불법 근로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 3일 전격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이들은 근로가 불가능한 방문 체류허가(ITK)나 도착비자(VoA) 등을 소지한 채 건설 현장에서 일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국은 적발자 중 17명을 자카르타 이민수용소에 구금 조치하고, 34명에 대해서는 여권 압류 및 출석 조사를 명령했다. 현장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확보하고 감시 대상자 명단에 등재해 추적 중이다. 헨다르삼 마란토코 출입국관리총국장은 "질서 유지와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주처인 SM+ 측은 즉각 선을 그었다. 운영사인 PT 디안 스와스타티카 센토사(DSSA)는 성명을 통해 "적발된 이들은 자사 직원이 아니며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 투입 인력의 비자 및 노무 관련 서류 관리는 전적으로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인니 교통부, 일반석 유류할증료 상한 40%로 전격 인상…
항공권 가격 도미노 상승 우려

- 최고운임 대비 유류할증료 상한선 30%에서 40%로 10%p 확대
- 항공유 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항공업계 "실판매가 6~8% 인상 전망"
- 소비자 단체 "도발적 인상, 여행 수요 위축 및 인플레이션 초래" … 11% 부가세 면제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반석 항공권에 부과할 수 있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FS)의 상한선을 기존 최고운임(TBA)의 30%에서 최대 40%로 전격 인상했다. 최근 국제 및 국내 항공유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운항 비용 부담을 반영한 조치지만,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항공 운임 상승이라는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 항공유 6.5% 급등에 유류할증료 상한선 상향 조정

인도네시아 교통부(Kemenhub)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운영 비용 구조를 평가한 결과, 일반석 여객 운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상한선을 최고운임의 4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한 항공유(avtur) 가격 추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6년 9월 1일 자로 고시된 인도네시아 전국 평균 항공유 가격은 리터당 약 23,315루피아로, 직전 기간 대비 약 6.5%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항공사의 운항 원가 압박을 완화하고 국가 항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한선 조정을 단행했다.

루크만 F. 라이사(Lukman F. Laisa) 교통부 항공운송국장은 9월 3일 공식 서면 성명을 통해 "이번 상한선 조정은 항공사의 운항 비용 증가와 국가 항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루크만 국장은 "40%는 법령에 명시된 부과 상한선(Ceiling)일 뿐이므로, 항공사는 개별 사업 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기준 미만으로 할증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며 "이번 정책이 항공권 가격 전반의 40% 일괄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부는 항공유 공급업체의 고시가격을 토대로 유류할증료 부과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항공사들이 법령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임을 적용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비자 단체 "수요 위축 및 인플레이션 초래"… 부가세 11% 면제 촉구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실질적인 항공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한선이 열린 만큼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항공사들이 점진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역량강화포럼(FKBI)의 툴루스 아바디(Tulus Abadi) 회장은 이번 조치가 항공업계와 국가 경제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툴루스 회장은 "유류할증료 비율이 40%로 확대됨에 따라 항공권 운임 상승은 기정사실이 되었다"며 "운임 부담이 가중되면 대중의 항공 이용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바섬 내 이동의 경우 고속도로나 철도 등 육상 대체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으나, 도서 지역이 밀집한 자바섬 외 지역 주민들은 대체 수단이 없어 극심한 이동 제한과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여객 감소와 물류비 상승이 경기 침체를 심화하고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툴루스 회장은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세를 제안했다. 그는 "비보조금 석유 연료(BBM) 가격마저 오른 상황에서 항공권에 부과되는 11%의 부가가치세(PPN)를 면제해야만 항공 운임의 급격한 상승을 상쇄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과 항공 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부가세 세수를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Pertamina는 Garuda Indonesia 비행기에 주유하고 있다. (Foto: Dok. Pertamina)

■ 항공업계 "실판매가 6~8% 상승 전망"… 사전 발권 고려 시 시차 발생

한편,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 상한선 인상이 항공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인상 폭과 시점은 시장 여건에 따라 완만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국적항공사협회(INACA) 사무총장이자 PT 트랜스누사 항공 만디리(PT Transnusa Aviation Mandiri) 대표이사인 바유 수탄토(Bayu Sutanto)는 "항공권의 상당 비율이 이미 사전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제도 변경이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유 사무총장은 "시차에도 불구하고 유류할증료 인상은 불가피한 운임 조정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석 승객이 체감하는 실판매 운임은 평균 6%에서 8%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저비용 항공사(LCC)들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Indonesia AirAsia)의 에디 크리스메디(Eddy Krismedi) 대외협력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40%는 상한선일 뿐이며 당사는 노선별 시장 환경과 유가,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할증료를 책정할 것"이라며 "대중에게 가격 경쟁력과 합리성을 갖춘 항공편을 지속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 비용 절감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류할증료 상한선 상향으로 항공사의 비용 압박은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나, 항공권 실판매가 상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여행 및 여객 시장의 위축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BIC JAYA INDONESIA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재무장관, 고속철 '우시(Whoosh)' 채무 재조정 공식 발표… "상환 만기 80년으로 연장, 연 1조 루피아 수준 관리 가능"

- 천문학적 부채 부담 분산 목적… 만기 파격적 연장으로 단기 재정 압박 완화
- 관리 권한 다난타라(BPI)에서 재무부로 이관… 산하 특수목적기구(SMV) 단일화 검토
- 동부 자바 연장선 사업 공식 시사… 중국 당국과 초기 실무 협상 착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규모 재정 부담과 채무 불이행 우려를 낳았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일명 '우시(Whoosh)' 프로젝트의 부채 구조조정안을 전격 공개했다. 채권단과의 재조정을 통해 부채 상환 만기를 최장 8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연간 상환 부담액을 1조 루피아(한화 약 850억~900억 원) 안팎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시 프로젝트 채무 구조 재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 만기 80년 연장 파격 조치… "연간 1조 루피아, 정부 재정 통제권 내 위치"

푸르바야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시 프로젝트와 직결된 총부채 규모 자체가 막대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채무 재조정(리스트럭처링) 협상을 거쳐 상환 기한을 최대 80년으로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상환액은 시기별 편차가 존재하나 매년 약 1조 루피아 또는 그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동결 및 분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우시 프로젝트를 둘러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 컨소시엄 및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수준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80년 만기 연장 조치를 통해 단기 채무 상환 압박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번 채무 조건 변경은 단기 및 중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방어하고 프로젝트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연간 약 1조 루피아의 지출 규모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거시경제 재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던 '파국적 채무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멀다"며 "채무 구조가 성공적으로 분산된 만큼 현세대가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까지도 안정적으로 분할 상환될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이며 재정 통제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다난타라에서 재무부로 주관 이관… 단일 특수목적기구(SMV) 신설·지정

우시 프로젝트의 지배구조 및 관리 체계 또한 일원화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현재 다난타라 투자관리청(BPI Danantara)이 보유하고 있는 우시 고속철 관련 자산 및 부채 관리 권한을 재무부로 전면 이관하는 공식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푸르바야 장관은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다난타라로부터 재무부로의 권한 인계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관리 권한 이관에 발맞춰 정부는 채무 상환 및 자산 운용을 전담할 실행 기구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재무부 산하의 인프라 보증·금융 전문 공기업인 'PT 사라나 멀티 인프라스트럭처(PT SMI)'와 '인도네시아 투자청(INA)' 등 복수의 기관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그러나 연간 상환 부담이 1조 루피아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 특수목적기구(SMV) 또는 공공서비스기구(BLU)에 권한을 집중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실제 감당해야 할 연간 현금 유출 규모가 당초 추정치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나의 SMV 체제로 단일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Menkeu Purbaya Yudhi Sadewa (Foto: Istimewa)

■ 동부 자바(수라바야) 연장 사업 본격화… 중국 당국과 실무 채널 가동

한편, 재무부는 우시 프로젝트의 채무 정상화에 이어 노선 확장이라는 차기 국책 사업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기존의 자카르타-반둥 구간(142.3km)에 국한되지 않고, 자바섬 동부의 핵심 경제 거점인 수라바야 등 동부 자바 지역까지 고속철 노선을 전면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향후 확장되는 동부 자바 고속철도 인프라의 소유권 및 운영 관리 주체를 재무부 산하 SMV 체제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1단계 사업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정부 및 금융당국과 이미 비공식 실무 접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르바야 장관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물류·교통 혁신을 위해 고속철을 동부 자바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 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지 핵심 관계자들과 초기 협의를 진행한 결과, 중국 측 역시 노선 확장 투자 및 기술 협력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카르타-반둥 구간의 부채 위험이 '80년 장기 상환' 체제로 흡수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선 연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와 수익성 극대화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80년에 달하는 초장기 부채 상환이 미래 세대에 장기적인 재정적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상존하는 만큼, 향후 동부 자바 연장선에 대한 추가 차관 도입 조건과 경제성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oway
TALK
한인기업 특별 상담
0811-9294-114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동향

수입 대신 현지 생산으로 전환한 한국 스마트폰 강력한 신뢰도로 중국산과 경쟁

상품명 및 HS Code

HS Code	품명
851713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시장 동향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모바일 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저가 기기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회복력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브랜드들은 디자인·기능·성능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기기를 내놓으며 다양한 소비자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처럼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갈수록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판매 현황(카테고리별)>



[자료: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스마트폰은 이제 인도네시아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됐다. 통신부터 디지털 결제까지 모든 용도로 쓰이는 이 기기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Exploding Topic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5년 기준 총 스마트폰 사용자 수에서 세계 상위 5개국 중 4위를 차지했으며, 2억 7,550만 명의 인구 중 1억 8,770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접속 기기>



[자료: APJII, 2026]

2026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APJII)의 데이터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 접속을 위한 주된 기기로 전체 사용자의 84.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월 소득 100만 루피아 미만 가구부터 1,500만 루피아 이상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계층은 물론, Z세대부터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에 이르는 모든 교육 수준·연령대에서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기기로 나타났다.

수입 동향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국가별 수입량(HS 8517.13.00)>
(단위 : kg)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비중 (%)	전년 대비 증감률 ('24 - '25)
1	중국	1,297,432	1,051,023	1,092,970	1,409,306	95.6%	28.9%
2	바레인	2	-	-	13,500	0.9%	-
3	싱가포르	5,655	11,949	12,846	9,749	0.7%	-24.1%
4	미국	557	802	2,892	9,060	0.6%	213.3%
5	홍콩	2,202	1,550	6,953	7,520	0.5%	8.2%
6	필리핀	66	-	30	7,434	0.5%	24,680.0%
7	말레이시아	245	151	4,124	7,164	0.5%	73.7%
8	사우디아라비아	63	94	183	3,141	0.2%	1616.4%
9	호주	34	58	156	1,441	0.1%	823.4%
10	베트남	114,576	826	316	1,153	0.1%	264.8%
16	**한국**	**575**	**2,109**	**588**	**180**	**0.0%**	**-69.3%**
전세계 합계		**1,422,072**	**1,069,308**	**1,124,591**	**1,474,510**	**100.0%**	**31.1%**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국가별 수입액 (HS 8517.13.00)>
(단위 : 천 달러)

순위	국가	2022	2023	2024	2025	2025년 비중 (%)	전년 대비 증감률 ('24 - '25)
1	중국	1,067,992	1,951,424	1,942,142	2,976,277	99.91%	53.2%
2	오스트리아	-	0.5	1.1	815	0.03%	71,908.5%
3	미국	314	408	542	545	0.02%	0.6%
4	싱가포르	3,710	18,236	354	280	0.01%	-20.7%
5	홍콩	470	410	339	278	0.01%	-18.0%
6	베트남	9,360	336	138	137	0.00%	-0.8%
7	말레이시아	34	34	56	100	0.00%	77.5%
8	독일	9	45	467	79	0.00%	-83.1%
9	영국	27	30	41	65	0.00%	59.6%
10	일본	17	28	41	55	0.00%	34.0%
12	**한국**	**88**	**246**	**84**	**37**	**0.00%**	**-56.4%**
전세계 합계		**1,082,133**	**1,971,325**	**1,944,397**	**2,978,821**	**100.0%**	**53.2%**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수입국 순위에서 꾸준히 1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다.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2023년부터 급격히 감소했고,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두 지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한국의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인 삼성전자가 수출보다 현지 생산 쪽에 무게를 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015년 치카랑(Cikarang)에 스마트폰·태블릿 공장을 세우며 이런 흐름을 앞장서 이끌었다.

반면 중국은 수입량·수입액 모두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중국 브랜드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가성비 좋은 기술력(특히 보급형~중급형), 공격적인 마케팅, 다양한 제품 라인업, 꾸준한 혁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산 스마트폰의 수입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주요 애플사 휴대폰 수입사들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New!
자연을 마시다,
리얼 코코넛!
가야성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지금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개 구매 시
45K
2개 구매 시
더~욱 저렴하게!
75K
100% REAL COCONUT
시원하게! 건강하게! 코코넛 한 잔의 힐링!
100% 자연 그대로
수분 가득 수분 보충
저칼로리 건강한 선택
시원하고 상쾌하게!
예약 문의
081295094658
지금이 기회!
한정 기간 특별 가격 놓치지 마세요!
COCONUT
Fresh & Natural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경쟁 동향

<인도네시아의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

브랜드명	국가명	주요 특징	가격대	인기 제품
Infinix 인피닉스	중국	합리적인 가격대에 높은 사양을 제공해, 가성비를 추구하는 가격 민감형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 급상승	IDR 1,729,000~10,217,700 약 151,600~896,100 원	 인피닉스 스마트 20
oppo 오포	중국	인물 사진 촬영 기술 혁신, 미적 디자인, 초고속 충전(VOOC Flash Charge)에 중점	IDR 2,270,560 - 26,969,000 약 199,100~2,365,200 원	 오포 A6x
샤오미	중국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에 최고급 사양(하드웨어)을 제공해 가성비로 유명	IDR 2,197,900 - 19,999,000 약 192,800~1,753,900 원	 Poco X8 Pro
SAMSUNG 삼성	한국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생태계,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장, 디스플레이·폴더블폰 기술 선도	IDR 2,155,550 - 44,499,000 약 189,000~3,902,600원	 갤럭시 A07
vivo Vivo	중국	야간 촬영 성능, 짐벌 안정화 기반의 카메라 안정성,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강점	IDR 1,899,000~25,479,020 약 166,500~2,234,500원	 Vivo Y03t
realme Realme	중국	중저가임에도 빠른 성능, 세련된 디자인, 플래그십급 기능을 함께 갖춤	IDR 1,899,000 - 8,999,000 약 166,500~789,200 원	 Realme P4 Lite
Apple	미국	iOS 생태계와의 독점적 통합, 높은 재판매 가치, 강력한 Bionic/A 시리즈 칩셋 성능,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 촬영 기능	IDR 12,349,050 - 29,999,000 약 1,083,000 - 2,630,900 원	 iPhone 17

[자료: 유로모니터, 쇼피, digimap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4년 휴대전화 보유율은 68.85%로 전년(67.29%) 대비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내 휴대전화 보급이 계층을 막론하고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25년 말까지 이어지던 성장세는 해가 바뀌면서 둔화됐다.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메모리 칩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소매가가 7~45%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시기가 지연되거나 중고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했고, 그 여파로 저가형 제품군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런 상황에서도 브랜드별 이미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애플은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자부심을 자극하는 프리미엄 이미지로 다른 브랜드와 확실히 차별화되고 있다. 반면 삼성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앞세운 이미지가 강하다. 디자인 혁신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존재하지만, 보안성과 내구성에 대한 신뢰가 구매 결정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갤럭시 S·Z 시리즈 등 플래그십 라인이 별도의 프리미엄 소비층을 공략하면서, 삼성은 대중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 양쪽에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외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은 주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 구도에서 중국 브랜드들이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빠른 신제품 출시 주기, 투명한 가격 정책, 높은 가성비를 앞세워 전통 브랜드와의 성능 격차를 사실상 좁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보(Vivo)의 Y 시리즈는 일반적인 중저가 안드로이드폰과 차별화된 독자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애플과 유사한 포지셔닝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와 개별 시리즈의 이미지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지만, 특정 시리즈가 브랜드 전반의 시장 위상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유통 구조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유통 채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네트워크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오프라인에서는 멀티 브랜드 유통망, 브랜드 공식 스토어, 애플 전문 리셀러, 가전 전문점까지 다양한 형태의 채널이 공존하고 있으며, 채널별로 취급 브랜드와 소비자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삼성·오포·비보 등 안드로이드 브랜드는 대부분의 멀티 브랜드 유통망에서 폭넓게 취급되는 반면, 애플은 디지맵·아이박스 같은 공인 프리미엄 리셀러를 통한 별도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휴대폰·전자제품이 비디오 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인도네시아 비디오 커머스 시장에서 휴대폰·전자제품은 15%의 점유율로 패션·액세서리, 뷰티·퍼스널케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관여·고가 제품군인 스마트폰조차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구매가 상당 부분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협회(APJII) 설문조사에서도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의 7.4%가 온라인 거래로 전자제품·가젯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오프라인 체험 중심이었던 스마트폰 구매 행태가 온라인으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율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에 따라 스마트폰(HS 코드 85171300)에는 0%의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역시 0%로 설정돼 있어, 협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부담은 없다. 다만 수입 관세 외에도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VAT) 12%와, 물품 수입 및 특정 국내 상업 활동에 부과되는 소득세 제22조(PPh 22) 10%가 적용된다.

인증

인도네시아로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사전에 다음 인증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 인증, TKDN 인증, 수입 TPP 취득은 필수 사항이며, 인증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 진출 전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사점

한국산 스마트폰의 직접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완제품(CBU) 수출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 모바일 시장 진출의 실효성 있는 전략이 아님을 시사한다. 현지 조립(EMS), 소프트웨어 통합, 또는 투자·R&D를 통한 현지 콘텐츠 규정(TKDN) 준수는 SDPPI 인증 및 CEIR IMEI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 한국의 부품 제조업체, OEM·ODM 공급업체, 기술 벤더들은 시장 진입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십, 공급망 통합, 현지 가치 창출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비용·고사양을 앞세운 중국 브랜드가 지배하는 가격 민감형 시장에서, 특히 전 세계적인 메모리 칩 가격 급등과 같은 공급망 압박 속에서는 가격 경쟁만으로 승부하기 어렵다. 삼성의 시장 지위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신뢰·품질,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디스플레이 혁신(예: 폴더블)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확대하려면 시리즈별 차별화된 포지셔닝(중저가 가성비 모델인 갤럭시 A,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S·Z)을 유지하면서, 생태계 통합, 기기 내구성, 소프트웨어 보안, 사후 서비스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망(에라폰, 공식 브랜드 매장 등)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온라인 채널 특히 비디오 커머스(틱톡 샵, 쇼피 라이브)는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한국 스마트폰 브랜드와 액세서리 제조사는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기술 분야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협업, 타깃형 디지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모든 경제 계층의 Z세대·밀레니얼 세대 구매자와의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이미 강한 호감을 얻고 있는 한류를 마케팅에 접목하는 것도 삼성 같은 브랜드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규제 환경에 대응하려면 이른 준비가 필요하다. 통신디지털부(Komdigi)의 SDPPI 기술 인증 취득, 산업부(SIINas)의 TKDN 규정 준수, Import TPP를 통한 IMEI 등록 완료는 중요한 비관세 장벽이다. 이러한 다기관 승인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외국 기업들은 시장 진입 지연을 막기 위해 제품 출시 전에 별도의 규제 준수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 BPS,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 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 Asia), 삼성(Samsung), CNBC, IDN 타임즈(IDN Times), 쇼피(Shopee), 틱톡(TikTok), APJII, 재무부 규정(PMK), 산업부, 통신디지털부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하원, 재무부 2027년도 예산안 49조 8,000억 루피아 규모 최종 승인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제11위원회가 재무부(Kemenkeu)의 2027회계연도 예산 한도를 총 49조 8,011억 2,798만 4,000루피아(한화 약 4조 3,000억 원) 규모로 공식 승인했다.

DPR 제11위원회는 지난 2026년 9월 7일(월), 자카르타 세나얀 국회의사당 단지에서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연도 국가수입지출예산(APBN)에 반영될 재무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무카마드 므스바쿤(Mukhamad Misbakhun) DPR 제11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 회의 결론을 공식 낭독했다. 참석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합의문에서 므스바쿤 위원장은 "DPR 제11위원회는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7년 국가수입지출예산상 재무부 소관 예산 한도를 49조 8,011억 2,798만 4,000루피아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고 공표했다.

■ 프로그램·기능별 세부 지출 내역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재정정책, 국가수입 및 국가지출 관리, 국고 및 리스크 관리, 행정지원 등 핵심 국정 운영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됐다.

주요 프로그램별 배분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지원 프로그램: 45조 8,100억 루피아 ▲국가수입 관리 프로그램: 3조 6,200억 루피아 ▲국고, 국유재산 및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2,675억 8,000만 루피아 ▲재정정책, 금융부문 및 경제 프로그램: 788억 6,000만 루피아 ▲국가지출 관리 프로그램: 237억 8,000만 루피아

기능별 분류에서도 행정지원 부문이 41조 5,100억 루피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경제 부문에서는 국가수입 관리(2억 2,000만 루피아) 및 행정지원(2,984억 2,000만 루피아) 프로그램이 배정됐다. 교육 기능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3조 9,900억 루피아가 편성됐다.

■ 1급 실무부서(Eselon I) 및 산하기관 배분액

재무부 산하 1급 실무부서(Eselon I) 및 공공서비스기관(BLU)별 세부 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1. 사무총장실 및 교육기금관리청(LPDP): 32조 3,000억 루피아
2. 국세총국: 6조 2,700억 루피아
3. 국고총국: 4조 2,600억 루피아
4. 관세·소비세총국: 4조 900억 루피아
5. BATII: 1조 3,600억 루피아
6. 국유자산총국: 9,453억 9,000만 루피아
7. 재정재정연수원(BPPK) 및 국립회계대학교(PKN STAN): 3,426억 6,000만 루피아
8. 재원조달 및 리스크관리총국: 932억 루피아
9. 예산총국: 481억 루피아
10. 재정균형총국: 466억 5,000만 루피아
11. 감사총국: 363억 루피아

■ "산출물과 성과 중심의 효율화 요구"… 분기별 보고 의무화

DPR 제11위원회는 예산 통과와 동시에 엄격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므스바쿤 위원장은 "실무부서별 예산 한도는 단순 지출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산출물(Output)과 실질적 성과(Outcome),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Impact)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효율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27회계연도 동안 매 분기마다 정기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단순 집행률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세부 활동, 산출물, 수혜 대상 간의 정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므스바쿤 위원장은 "제출된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부 예산의 기획, 배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실효성과 효익을 극대화하는 예산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국회의 신속하고 건설적인 심의와 승인에 사의를 표했다. 뿌르바야 장관은 "재무부 원안에 대한 DPR 제11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의 공고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Menteri Keuangan (Menkeu) Purbaya Yudhi Sadewa (Foto: Istimewa Kemenkeu)



화산 분화에 수카르노-하타 공항 마비 위기 노출
“이틀간 1억 6,800만 달러 규모 수출입 차질”

- 48시간 운항 중단 시 무역 지연액 약 2조 9,000억 루피아 육박
- 여객 34만 명 · 항공편 3,000여 편 타격… 항공 안전 넘어 공급망 대혼란 직면
- SCI, “의약품 · 핵심 부품 우선 처리 및 범부처 긴급 재난 물류 체계 가동해야” 촉구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위치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폭발적 분화로 인한 화산재 확산이 여객 운송을 넘어 국가 핵심 무역 통로인 항공 물류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반텐주 탕에랑 소재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Soetta)의 항공편 결항 및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최대 1억 6,800만 달러(한화 약 2조 9,000억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수출입 흐름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 공항 폐쇄 48시간 지속 시 무역 지연액 1억 6,800만 달러 달해

인도네시아 공급망협회(SCI)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세티야디(Setijadi) 대표는 8일(현지 시각)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화산 분화의 여파를 단순한 항공 안전사고 예방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보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세티야디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화산재 확산으로 인해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운영 차질 및 영공 폐쇄 조치가 48시간 동안 이어질 경우 지연되는 국제 무역 규모는 수출 5,423만 달러(FOB 기준), 수입 1억 1,383만 달러(CIF 기준, 수입 화물 약 960톤 포함) 등 총 1억 6,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티야디 대표는 “대규모 화산재 확산은 영공 폐쇄, 항공편의 대거 결항 및 회항, 운항 일정의 급작스러운 변경뿐 아니라 공항 터미널 내 극심한 화물 적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해당 수치는 공항 운영 지연에 따라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통과하지 못하고 묶이게 되는 잠재적 무역 거래 규모를 추산한 것일 뿐, 확정적인 직접 손실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경제적 피해 규모는 결항 편수의 변동, 대체 수송 경로 확보 여부, 적체 화물의 품목 특성, 그리고 공항 운영 정상화 속도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추정치는 중앙통계청(BPS) 및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원 데이터 트레이드(Satu Data Perdagangan)’ 지표를 토대로 정밀 산출되었다. 지난 2025년 기준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연간 비석유가스 무역액은 306억 7,000만 달러(수출 99억 달러, 수입 207억 7,000만 달러)로 하루 평균 8,403만 달러에 달하며, 연간 수입 물동량은 17만 4,900톤(일평균 479톤) 수준이다.

◆ 항공편 2,961편·승객 34만 명 직접 타격… 물류 대란 현실화

실제 공항 현장의 혼란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두디 푸르와간디(Dudy Purwagandhi)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화산재 확산에 따른 공항 운영 변경 및 제한 조치로 인해 총 2,961편의 항공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선은 2,339편, 국제선은 622편에 달하며, 운항 차질로 피해를 입은 승객 수는 34만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면서 화물 터미널의 병목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여객기 하부 화물칸(Belly Cargo)을 활용한 화물 운송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경우 여객기 결항과 함께 즉각적인 운송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 SCI “범부처 비상 프로토콜 가동 및 BCP(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시급”

물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인도네시아 국내외 산업 전반의 가동 중단이나 납기 지연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조속한 비상 대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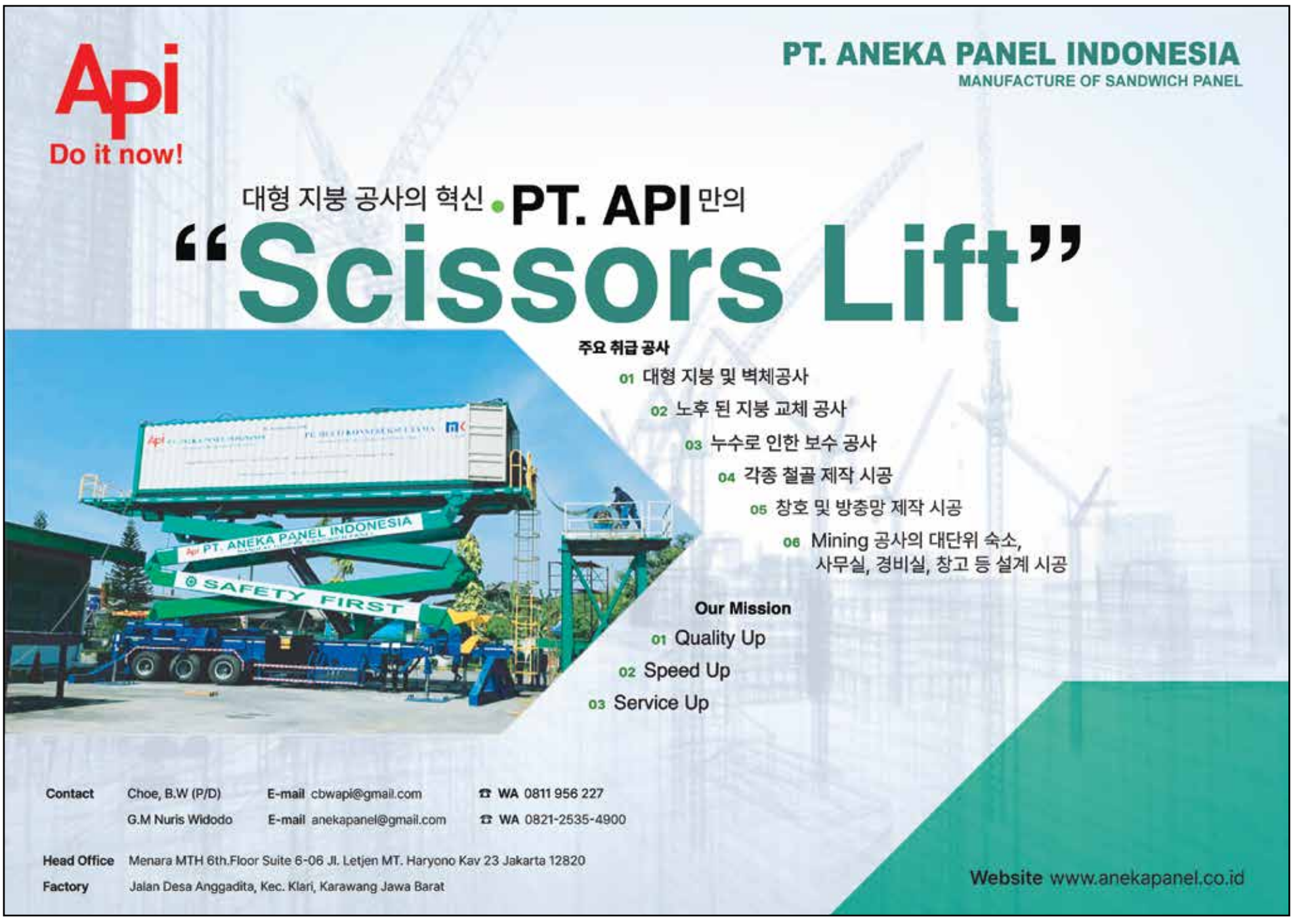
SCI는 단기 대책으로 공항 운영사(PT Angkasa Pura), 항공사, 복합운송주선인(포워더), 관세청, 검역소, 화주 간의 ‘긴급 대응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권고했다.

협회가 제시한 최우선 과제는 ▲화산재 이동 궤적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공편 일정 재조정 및 임시 화물기 추가 투입 ▲세관 통관 및 검역 서류 처리의 신속화 ▲중부 자바 및 동부 자바 등 대체 공항을 통한 우회 수송망 확보 등이다.

특히 세티야디 대표는 “시한성 화물인 부패성 신선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핵심 산업 부품, 고가 전자제품, 특송 화물 등에 운송 우선순위를 부여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내선 화물의 경우 철도, 육상 및 연안 해운을 연계한 복합물류망으로 신속히 전환 수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티야디 대표는 정부 차원의 ‘범부처 재난 물류 프로토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무역·물류 기업들을 향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연속성계획(BCP)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주요 무역 기업들은 장기 운항 차질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체 공항을 사전에 지정하고, 물류 기업들과 예비 수송 역량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 두어야 한다”며 “수입 기업은 핵심 부품 및 원자재의 안전 재고 비축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 수출 기업은 공항 인근에 대체 보관 창고와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공급망 유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제9회 문예총 종합예술제
아리아리
한국
2026.9.12(토) ~ 9.13(일) 롯데에비뉴
전시 : 9.12(토) 오후 2시~13(일) 메인아트리움(1F)
공연 : 9.12(토) 오후 2시 30분 아이스팰리스홀(4F)
재 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Korean Culture & Art Association in Indonesia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자바베카 산업단지’ 폐수 검사 조작 의혹 일파만파…
印尼 하원, 불시 점검 및 사법 조치 경고

- 기준치 8배 초과 폐수가 일주일 만에 ‘정상’ 둔갑… 시험소 유착 의혹 집중 조명
- 하원 제12위원회, 현장 검증 착수… 본사 대표 불출석에 퇴정 명령 등 강력 반발
- 환경영향평가 누락 · 폐기물 처리 미비 등 총체적 관리 부실 드러나 영업 허가 정지 가능성도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제12위원회가 서자바주 브카시군 치카랑 소재 ‘자바베카(Jababeka) 산업단지’에서 제기된 환경 법규 위반 및 폐수 검사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고강도 현장 조사와 사법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에너지·환경·투자를 소관하는 하원 제12위원회는 7일 밤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환경부/환경통제청(KLH/BPLH)과 함께 환경실무단(Panja) 청문회를 열고, 자바베카 측의 폐수 배출 및 수질 검사 과정 전반에 중대한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청문회는 PT 자바베카(PT Jababeka Tbk)의 산업 폐수관 문제로 피해를 입은 PT 마스테르타마 아디 프로페르틴도(PT MAP)의 민원에 따라 소집됐다.

이날 공개된 환경 당국의 현장 검증 결과에 따르면, 민간 검사 기관인 PT 미디어 랩(PT Media Lab)의 수질 분석 결과가 불과 1주일 사이에 정반대로 뒤집힌 정황이 포착됐다. 초기 보고서에서 자바베카 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100mg/L)의 8배를 웃도는 810mg/L,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20mg/L)를 14배 이상 초과한 289mg/L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일주일 만에 수정 공문을 내어 COD 63mg/L, BOD 19mg/L로 수치를 낮추며 돌연 ‘기준치 충족’ 판정을 내렸다.

리잘 이라완 환경법 집행 담당 부청장은 “현장 검증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내에 이처럼 극단적으로 검사 결과가 바뀌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원 측은 이러한 결과 번복을 단순 행정 과실이 아닌 고의적 조작으로 규정했다. 밤방 하리야디 제12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조사 결과 조작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을 넘어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 등 사법 당국에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환경 관리의 총체적 부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자바베카 측이 설치한 배수관은 약 36년 된 노후 시설임에도 최근 3년간 정기 유지보수를 받지 않은 정황이 적발됐다. 아울러 일부 입주 기업의 환경영향평가(AMDAL) 누락과 단지 내 폐기물 임시 보관소(TPS) 미구비 등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서는 출석 문제를 둘러싼 파행도 빚어졌다. 세티오노 주안디 다르모노 자바베카 본사 대표이사가 두 차례 연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자회사 대표를 대리 출석시키자, 분노한 위원회가 대리 참석자를 전격 퇴정 조치했다. 밤방 부위원장은 “입법부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하원 제12위원회는 조만간 자바베카 단지에 조사팀을 급파해 불시 점검(sidak)을 단행하고, 검사 결과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시험소 관계자를 소환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공식 확인될 경우 영업 허가 정지 등 초강경 제재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일본,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산불 진화 지원…
치누크 헬기 3대·병력 180명 파견

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의 대규모 산불 및 토지 화재(karhutla)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수송 헬리콥터와 대규모 지원 병력을 전격 파견한다.

트리 부디 우토모(Tri Budi Utomo) 인도네시아 국방부 사무총장(육군 중장)은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공중 살수(water bombing) 작전 능력을 갖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3대와 육상자위대(JGSDF) 병력 약 180명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파견되는 헬리콥터와 운용 승무원 및 작전 지원 요원들은 약 1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한 일본 해상자위대(JMSDF) 수송함 '쿠니사키함(JS Kunisaki)'에 실려 9일 서칼리만탄주 키징(Kijing) 항만 터미널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지상 병력의 진입이 극히 제한적인 칼리만탄 내 험지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장비가 도착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트리 중장은 " 비행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기체 운용 태세를 완벽히 점검하기 위해 사전 시스템 점검과 시험 비행(flight test)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점검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치누크 헬기 3대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본격적인 공중 진화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전력이 투입되더라도 화재 진압 작전에 대한 전적인 지휘·통제권은 자국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트리 중장은 "일본 자산과 인력은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작전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합 지휘 체계 내에서 운용된다"며 "실제 공중 살수 작전은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지휘 하에 국가재난방지청(BNPB)과 긴밀히 협력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견은 지난 5월 4일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방위협력약정(DCA)'의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해당 협정의 주요 협력 분야인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HADR)'에 기반한 순수 인도주의적 협업이라는 설명이다. 트리 중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표해 일본 정부의 지원과 연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협력은 우방국 간의 상호 부조 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국 방위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CH-47 치누크 헬리콥터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따르면 현재 칼리만탄 일대의 산불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칼리만탄주에서는 36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350헥타르(ha) 이상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중부칼리만탄(47곳·100ha 피해)과 남칼리만탄(21곳·260ha 피해)에서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공중 진화 지원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재 직격탄 맞은 수도권 학교… 7일부터 자카르타·반뜬·세랑 일제히 원격수업 전환

- 자카르타주, 9월 7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전 각급 학교 원격수업(PJJ) 시행
- 판데글랑 · 세랑 등 인근 지역도 비상 조치… "학생 건강 · 안전 최우선"
- 당국, "유언비어 자제 및 공식 채널 정보 확인" 거듭 당부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순다 해협에 위치한 활화산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의 분화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자바섬 서부 일대의 대기 질이 악화되면서,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적인 원격수업 체제 돌입에 나섰다.

자카르타 수도주(DKI Jakarta) 교육청은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노출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9월 7일(월)부터 원격수업(PJJ, Pembelajaran Jarak Jauh)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카르타 관내의 유아교육기관(PAUD)부터 고등학교 및 직업고등학교(SMK)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공·사립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

◇ 자카르타주 "교육 중단 아닌 가정 내 학습… 학부모 동요 말아야"

나디아나(Nahdiana) 자카르타주 교육청장은 지난 6일(일) 오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원격수업 전환이 교육 활동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각 학생의 여건과 필요에 맞추어 가정에서 안전하게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나디아나 청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라며, "학습 과정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

자카르타 교육청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선 교육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학습 과정에 대한 지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는 재택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차질에 대비해 철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나디아나 청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과제"라며, "학부모들께서도 자녀의 재택학습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접하는 모든 정보가 공식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역시 유관 지방정부 기관들과 공조하여 대기 질 상황과 화산재 확산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학사 운영 방침은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재평가 및 조정될 방침이다.

앞서 자카르타주 교육청은 화산재 대비 경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회람 공문 제91/SE/2026호를 발행하여 관내 모든 보육·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7일부터의 전면 원격수업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 인근 반뜬주 및 세랑시도 비상 조치 동참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화산재 확산 경로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들도 일제히 학사 일정 조정에 돌입했다.

반뜬(Banten)주 판데글랑(Pandeglang)군 교육청소년체육국(Disdikpora)은 회람 공문 제400.3/3-DISDIKPORA/2026호를 통해 9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및 재택학습(BDR, Belajar Dari Rumah)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토토(Sutoto) 판데글랑군 교육청소년체육국장은 "학부모들은 화산재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야외 활동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아동에게 의료용 표준 마스크나 방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토토 국장은 이번 조치가 유동적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랑(Serang)시 교육문화국(Dindikbud) 역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의 여파로 9월 7일 하루 동안 관내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사 일정을 원격수업 및 재택학습으로 일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폭발 Erupsi Gunung Anak Krakatau (2026.9.5)

아흐마드 누리(Ahmad Nuri) 세랑시 교육문화국장은 "대기오염표준지수(ISPU)의 추이와 화산재 확산 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향후 학사 운영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세랑시 환경국 및 지방재난관리청(BPBD) 등 유관 기관과 정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 주말 이어진 화산 분화… 수도권 및 서부 자바까지 화산재 확산

이번 학사 일정 전면 조정의 도화선이 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최근 며칠간 뚜렷한 활동 증가세를 보여왔다. 해당 화산은 금요일 밤(4일 밤) 강력한 분화를 일으켰으며, 뿜어져 나온 대규모 화산재는 인근 반텐주를 거쳐 자카르타 수도권(Jabodetabek), 나아가 서부 자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인도네시아 재난 및 교육 당국은 화산 활동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기 질 모니터링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을 향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 뉴스에 동요하지 말고,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지침과 채널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수도권 일대의 각급 학교가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분간 학생들의 야외 활동은 전면 제한되며 가정 내 학습을 중심으로 한 비상 학사 운영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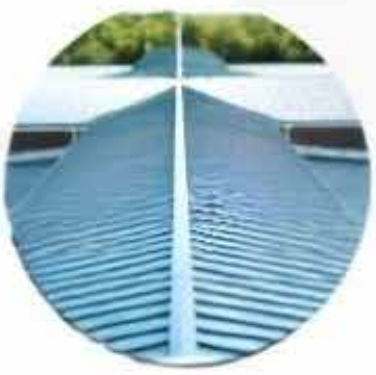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재 수도권 전역 확산…
보건당국, 마스크 착용 및 외출 자제 긴급 권고

- 자카르타·보고르·데폭·땅그랑·브카시 등 수도권(Jabodetabek) 일대 광범위한 피해 발생
- 보건부, 호흡기·안구·피부 등 3대 건강 영향 경고… 전국 보건소에 의약품 긴급 비치
- 전문가 "미세 연마성 입자, 급성 상기도 감염 및 천식 악화 우려… N95 마스크 착용 필수"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2026년 9월 5일과 6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위치한 아낙 크라카타우산(Gunung Anak Krakatau)의 분화 여파로 인해 대량의 화산재가 수도권인 자카르타 및 주변 위성도시(자보데타벡·Jabodetabek) 일대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이번 화산재 낙하로 인해 자카르타를 비롯해 브카시, 데폭, 보고르, 땅그랑 등 서부 자바 및 수도권 전역에서 시민들의 피해 호소와 함께 방재 비상이 발령됐다.

◇ 수도권 아침 하늘 뒤덮은 화산재… 차량과 가옥 지붕에 미세 분진 쌓여

이날 오전부터 브카시, 데폭, 보고르 등 수도권 각지에서는 미세한 회색빛 분진층이 주택의 지붕과 야외에 주차된 차량, 테라스 등을 두껍게 덮은 모습이 관측됐다. 브카시 거주민인 무티아(Mutya) 씨는 "이른 아침 집 테라스와 주차된 차량 위로 미세한 재가 눈처럼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주거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에서도 화산재가 목격됐다. 일요일 오전 자카르타 기초·중등교육부 청사 일대에서 개최된 '2026 공무원(ASN) 런' 행사 영상에서는 행사장 상공과 주변 시설물 위로 미세한 화산 분진이 내려앉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서부 자카르타의 한 아파트 주민인 아나타 씨는 "아파트 단지 내 병원으로 걸어가는 복도 바닥과 로비, 야외 주차된 차량 모두가 정체 불명의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라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반 먼지로 오인했던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야 이것이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임을 인지했다.

◇ 인도네시아 보건부, 화산재 노출에 따른 '3대 건강 영향' 발표 및 비상 대응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는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도한 공황을 경계하는 한편, 화산재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건강 위협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학적 관점에서 이번 화산재로 인해 유의해야 할 건강 영향은 크게 호흡기계, 안구, 피부 등 세 가지 부문에 집중된다"라며 시민들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보건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해당 지역 보건소(Puskesmas)에 보건응급운영센터(HEOC)를 가동하고, 네뷸라이저(흡입기), 산소발생기, 안약, 피부 연고 등 긴급 구호 의료 물품을 전진 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부가 권고한 부문별 대응 지침은 다음과 같다.

호흡기계 보호: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호흡 곤란이나 기침 등 이상 증세가 느껴질 경우 즉시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구 보호: 외출 시 화산재가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경이나 보안경을 착용한다. 만약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경우 절대 손으로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로 즉시 씻어낸 뒤 보건소에 비치된 안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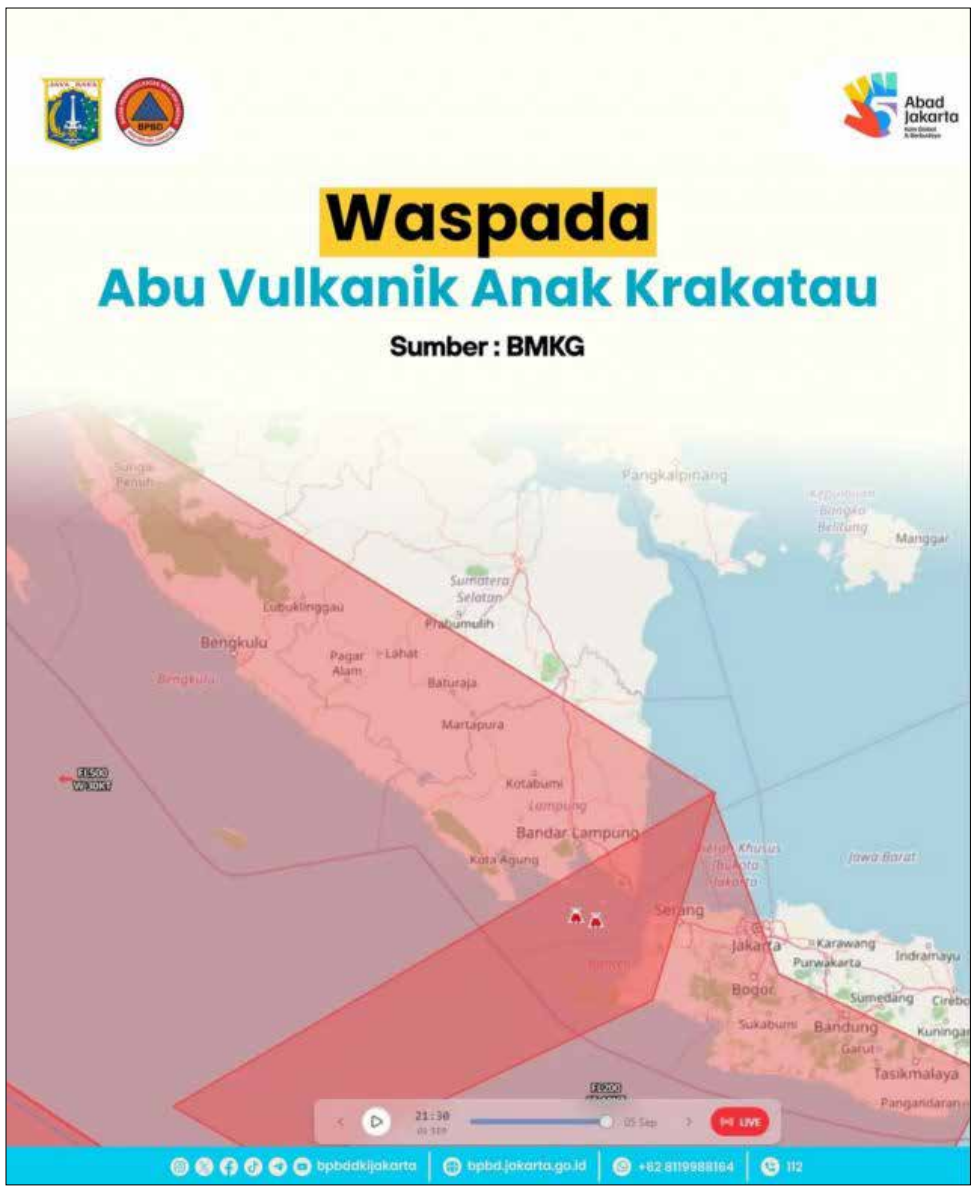
피부 보호: 날카로운 화산 분진 입자가 피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자극성 피부염이나 소양증(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후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몸을 씻어내야 한다.

또한, 자카르타 특별주 보건청은 대기 중 화산재 농도가 짙어질 경우 실외 활동을 전면 제한할 것과 실내로의 분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의 창문과 출입문을 철저히 밀폐할 것을 시민들에게 강력히 권고했다.

◇ 호흡기내과 전문의 "화산재는 일반 먼지와 달라… N95 마스크 착용 필수"



9월 5일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활동



의학 전문가들은 화산재가 가진 물리·화학적 특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페르사하바탄 종합병원(RSUP Persahabatan)의 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화산재는 경도가 높고 연마성(마모성)을 띤 미세 입자로, 암석 파편, 광물, 화산 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 같은 유해 가스 성분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미세 입자가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상기도, 중기도, 하기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자극을 주어 콧물, 인후통, 가래 등을 유발하며, 급성 상기도 감염(ISPA)의 발생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라며,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나 천식 등 기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증상 악화를 초래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의는 1차적인 예방을 위해 미세 입자상 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N95 또는 KN95 규격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 당국 "아낙 크라카타우 경보 단계 '레벨 III' 유지… 공식 정보에 귀 기울여 달라"

아낙 크라카타우산은 지난 2026년 7월 2일 분화 활동을 재개한 이후, 이달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에 분화세가 한층 격화된 바 있다.

자카르타 특별수도주 정부와 재난관리청(BPBD)은 시민들에게 지나친 동요를 자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되,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마룰리투아 시자밧(Marulitua Sijabat) 자카르타주 BPBD 청장은 지질청 산하 화산학 및 지질재난 완화센터(PVMBG)의 발표를 인용해, 현재 아낙 크라카타우산의 화산 경보 단계는 여전히 '레벨 III(경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질청(PVMBG), 기상기후지질청(BMKG), 국가재난관리청(BNPB), 지역재난관리청(BPBD) 등 공식 기관의 발표를 신뢰하고,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마룰리투아 청장은 "자카르타시는 현재 적절한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춘 채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공식 안내 지침을 따르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갈무리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로 인근 7개 공항 사흘간 2,300여 편 운항 차질, 승객 27만 명 발 묶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위치한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 화산이 대규모 분화를 일으키면서 화산재가 상공을 뒤덮어 인근 주요 공항 7곳이 전면 폐쇄됐다. 이로 인해 사흘간 2,3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회항하면서 27만 명 이상의 승객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청 및 교통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화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 구름이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 2026년 9월 5일(토)부터 9월 7일(월)까지 총 7개 공항에 대해 임시 폐쇄 조치가 단행됐다. 분출된 화산재는 항공기 엔진 고장을 유발하고 조종사의 시야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어, 당국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각적인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총 2,319편의 항공편이 차질을 빚었으며, 총 27만 337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여기에는 전면 결항된 항공편을 비롯해 장시간 지연되거나 타 공항으로 회항한 항공편이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활주로가 전면 폐쇄된 7개 공항에서만 총 1,397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17만 7,579명의 탑승 예정객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폐쇄된 각 공항 터미널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과 항공사 관계자들로 극심한 혼잡을 빚었으며, 일부 승객들은 공항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등 큰 혼란이 이어졌다.

화산재의 확산 경로를 피해 우회 항로를 설정해야 했던 인근 및 연계 공항들의 타격도 적지 않았다. 비행 안전을 위한 항로 변경 및 연쇄 지연 여파로 인해 기타 공항에서도 922편의 운항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9만 2,758명의 승객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다.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 관계자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활동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류에 따라 화산재가 이동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통 당국은 기상청 및 화산 관측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기 중 화산재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는 시점에 공항 운영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항공사에는 피해 승객들을 위한 숙소 제공, 무료 환불 및 일정 변경 등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폭발 Erupsi Gunung Anak Krakatau (2026.9.5)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입국 대란 발생…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재 여파로 인천발 자카르타행 4개 항공사 전편 결항

-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23시 59분(WIB)까지 폐쇄 연장… 외국인 입국 관문 사실상 마비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티웨이항공 ·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동시 운항 중단… 한인 동포 및 여행객 발길 묶여
- 제트 엔진 치명적인 '화산재 위협'…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는 한인 동포들과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사상 초유의 입국 대란에 직면했다. 인도네시아 반뜬주 땅그랑에 위치한 수도 자카르타의 관문,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Soetta)이 인근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폭발로 인한 화산재 직격탄을 맞아 임시 폐쇄되면서, 한국과 자카르타를 잇는 주요 국적기 및 외항사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일요일인 2026년 9월 6일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자카르타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등 4개 주요 항공사의 직항편이 모두 결항 조치되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로 귀국하거나 출장 및 여행 목적으로 출국하려던 수많은 한인 동포와 승객들이 인천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9월6일 인천발 항공사 결항안내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관문,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전격 폐쇄

에어나브 인도네시아(AirNav Indonesia) 항공정보업무과가 발행한 항공고시보(NOTAM) 갱신 정보(NOTAM A3348/26, 기존 A3346/26 대체)에 따르면,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폐쇄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문서에는 위치 'WIII - JAKARTA / Soekarno-Hatta'와 함께 "Aerodrome - Closed(비행장 폐쇄)"가 명시되었으며, 폐쇄 사유는 "AD CLSD DUE TO KRAKATAU VOLCANIC ASH(크라카타우 화산재로 인한 비행장 폐쇄)"로 공식 확인됐다.

이번 폐쇄 효력은 서부 인도네시아 표준시(WIB) 기준으로 이날 13시 23분부터 발효되었으며, 당국은 공항 폐쇄가 23시 59분(WIB)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어나브 인도네시아 측은 화산 활동의 유동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혀, 운항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카르타의 또 다른 주요 공항인 할림 공항을 비롯해 인근 라딘 인텐 공항 등도 화산재 영향으로 14시(WIB)까지 폐쇄되는 등 인도네시아 수도권 일대의 하늘길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됐다.

항공 운항을 위협하는 화산재의 치명성

당국의 이 같은 전면적인 공항 폐쇄 조치는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연방항공청(FAA) 등 항공·지질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산재는 단단하고 마모성이 강한 암석 물질, 광물, 화산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 항공기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특히 고농도의 화산재가 제트 엔진 내부로 유입될 경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화산재에 포함된 규산염 물질은 최신 제트 엔진의 작동 온도보다 낮은 융점을 지녀, 엔진 내부로 들어가 용융된 뒤 온도가 낮은 부품에 다시 고착된다. 이는 엔진 성능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압축기 실속(compressor stall)을 유발하며, 최종적으로는 추력 상실을 초래해 항공기 추락 위험을 높인다.

더 큰 문제는 화산재 구름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야간이나 계기비행 시 일반 기상 레이더로도 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활주로에 쌓인 미세한 화산재는 항공기의 제동 성능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이착륙 시 엔진으로 흡입될 위험을 가중시킨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 규정에 따르면, 공항에 소량의 화산재만 퇴적되더라도 완전한 제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항 운영을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인 동포 사회 및 여행업계 비상… "항공사 안내 및 대체편 확인 필수"

이번 인천발 4개 항공사의 동시 결항 사태로 인해 자카르타 한인 사회는 긴급 체제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동포 커뮤니티 한인포스트와 여행사 등에는 입국 연기 및 항공편 일정을 문의하는 동포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

자카르타에 지사를 둔 한 대기업 주재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출장을 서두르던 한인동포와 상사원들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지 공항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현지의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산재로 인한 결항은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항공사의 안전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된다"며,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운영 재개 여부와 각 항공사의 후속 운항 일정은 에어나브 인도네시아의 실시간 NOTAM 정보와 각 항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방재 당국과 항공 당국이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분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카르타 하늘길이 언제쯤 정상을 되찾을지 전 세계 항공 및 한인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산림부, 북술라웨시 산림서 '불법 금 채굴' 중국인 2명 입건… 최고 징역 10년 직면

인도네시아 산림부(Kemenhut)가 북술라웨시주의 산림 보호구역 내에서 무허가로 금을 채굴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공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술라웨시 지역 산림법집행청(Gakkum)은 북술라웨시주 볼라앙 몽온도우군 옹칵강 제한생산산림(HPT) 구역에서 불법 금 채굴(PETI)을 주도한 혐의로 중국인 CXY와 XXL을 피의자로 지정했다고 2일 전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구역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채굴 작업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XXL은 현장 감독관으로 작업 전반을 관리했으며, CXY는 무허가 채굴 운영을 총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CXY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인부 임금 지급, 중장비 임차, 금 가공용 원료 구매 대금 등 채굴 작업에 필요한 자금이 대거 집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0일 현지 산림관리사업소(UPTD KPH Unit I)의 현장 순찰 중 금 침출조와 채굴 설비 등 불법 작업 흔적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당국은 적법한 인허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CXY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같은 달 18일 동일 구역에서 공범인 XXL을 연이어 체포했다. 피의자들의 신병은 마나도 제3구역 사무소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피의자들에게는 산림 훼손 및 무허가 채굴과 관련한 현행 법률(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들은 최고 징역 10년형과 함께 최대 75억 루피아(한화 약 6억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알리 바흐리(Ali Bahri) 술라웨시 지역 산림법집행청장은 "단속을 시작한 현장 관리단의 신속한 대처로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역할 규명과 함께 배후 인물이나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산림부(Kemenhut)가 북술라웨시주의 산림 보호구역 내에서 무허가로 금을 채굴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공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 September 2026. (Foto: Dok. Kemenhut)

드위 자누안토 누그로호(Dwi Januanto Nugroho) 산림법집행국장은 "산림 구역 내 무허가 채굴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을 무단 수탈하고 적법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천연자원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사법 당국과 공조해 단속과 법 집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곳간 차고 수출도 한다는데…" 마트서 5kg 프리미엄 쌀 사라진 까닭

국가 쌀 비축량 520만 톤 육박 · 말레이시아 수출까지 성사
정작 마트 진열대는 텅텅… 유통 전반 '5kg 프리미엄 쌀' 품귀
생산 원가 급등했으나 최고소매가격(HET)은 동결… 소매업계 "팔수록 적자"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의 주요 전통시장과 현대식 대형 유통망에서 5kg 포장 프리미엄 쌀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며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국가 쌀 재고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풍부하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발표와는 상반된 현상이 일선 유통 현장에서 벌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부 "쌀 재고 충분, 수출길 열려" 낙관론 펼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는 약 520만 톤에 달한다. 이는 2027년 5월까지 국가 비축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통신국(Bakom) 무함마드 보다리 국장은 최근 말레이시아와 1,000톤 규모의 프리미엄 쌀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3조 4천억 루피아 규모(최대 20만 톤)의 수출 잠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다리 국장은 "국내 공급 기반 강화를 토대로 식량 주권을 공고히 하고 해외 수요를 충족할 여력을 갖췄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역시 2026~2027년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이 3,860만 톤에 이르러 세계 4위 생산국 입지를 굳힐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수치와 달리, 정작 서민 가정이 가장 보편적으로 소비하는 5kg 규격 프리미엄 쌀은 소매점 매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원자재·가공비 뛰는데… 발목 잡힌 '최고소매가격(HET)'

이 같은 '공급 과잉 속 품귀'의 배경에는 생산 비용 상승과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 간의 극심한 엇박자가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정미소 단계의 프리미엄 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07% 급등했다. 현장 수확 건조 벼(GKP) 가격이 kg당 7,000루피아를 넘어서며 정부구매가격(HPP, 6,500루피아)을 웃돌자 도정, 가공, 포장, 물류비 등 전 유통 과정의 단가가 연쇄적으로 치솟았다.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전국 프리미엄 쌀 평균 가격은 kg당 15,626루피아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정한 프리미엄 쌀의 최고소매가격(HET) 규제다. 국립식량청 고시에 따른 HET는 1구역 기준 kg당 14,900루피아에 묶여 있다. 시장 평균 공급 가격이 이미 정부 상한선을 넘어선 것이다.

CORE 인도네시아의 엘리자 마르디안 농업 연구원은 "상류(생산) 단계의 비용 증가는 방치한 채 하류(소매) 유통 가격만 강제로 통제하다 보니, 가격 규제를 엄격히 적용받는 현대식 유통 채널로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팔수록 손해, 발주 축소 불가피"… 정부는 긴급 직공급 추진

인도네시아소매협회(Aprindo)는 물리적인 쌀 재고는 존재하지만, 공급업체로부터 들여오는 매입 원가가 HET를 초과해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정부 기준인 kg당 14,900원에 맞추려면 소매업체가 kg당 수백 루피아 이상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상가에 진열된 5KG 쌀 제품 (Foto: Istimewa)

결국 대형마트와 미니마켓 등 소매업계는 적자를 피하기 위해 5kg 들이 프리미엄 쌀의 발주를 대폭 축소했고, 이것이 소비자 접점에서의 '품귀 대란'으로 직결됐다. 솔리힌 Aprindo 회장은 식량조정장관 및 경제조정장관 측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실효성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국영물류청(Bulog)을 통한 긴급 물량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부디 장관은 "Bulog가 소매협회(Aprindo) 및 쇼핑센터입점협회(Hippindo)와 연계해 미니마켓과 대형 유통 매장에 프리미엄 쌀 물량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소매 매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식 물량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생산원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최고소매가격(HET)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는 한, '풍요 속 빈곤'이라는 기형적인 유통 왜곡 현상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국립 인도네시아대(UI) 한국어문학과 창립 20주년…
학술과 산업계를 잇는 '살아있는 가교'로 도약

- 2006년 설립 이후 16개 학번 졸업생 배출… 박사급 교수진 대거 확충 등 내실 다져
- 20주년 기념식 및 전국 학술 세미나 성료… 산·학·관 협력 및 AI 융합 교육 논의
- 정·재계 및 전문직 진출 동문 활약… "양국 잇는 전략적 인재 양성 요람으로 자리매김"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 인문대학(FIB) 한국어문학과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6.9.3 (Foto: Prodi Korea FIB UI)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고등교육기관인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 이하 UI) 인문대학(FIB) 한국어문학과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을 토대로 순수 학술 및 문화 교류를 넘어 전문 직업 세계와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잇는 핵심 가교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UI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는 지난 2006년 8월 16일 정식 설립된 이래,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전방위적 관계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어, 한국 문학 및 문화 연구에 대한 현지 수요를 선도적으로 견인해 왔다.

설립 당시 현지 교수진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8명의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한 전임교원 9명과 외래교원 4명을 확보하는 등 비약적인 질적·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지금까지 총 16개 학번의 졸업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및 글로벌 무대 곳곳으로 진출해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집대성하고 향후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2026년 8월 28일, 인도네시아 데폭(Depok) 소재 UI 인문대학 제1강당에서 'UI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2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함께한 20년, 함께할 미래" 및 "인도네시아 한국학 20년: 성찰과 미래 협력(20 Years of Korean Studies in Indonesia: Reflection and Future Collaboration)"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학계 석학, 재학생, 동문, 국내외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하여 교류의 장을 형성했다.

운퉁 유워노(Untung Yuwono) UI 인문대학 학장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단행된 한국학과 육성 조치가 시대를 앞서간 혜안이었음을 강조했다. 운퉁 학장은 "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한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변모한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며 "당시 한국학을 전격 육성하기로 한 결정은 대단히 적절하고 유효했던 장기적 학문 투자였음이 입증됐다. 우리는 단순한 한류 편승에 머물지 않고, 비판적이고 학문적이며 맥락을 심도 있게 고려한 학술적 토대를 견고히 구축해 왔다"고 회고했다.

에위스 술라스트리(Euis Sulastri) UI 한국어문학과 학과장 또한 "초기 교수진 부족 등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탄탄한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며 지난 20년간의 비약적인 발전 궤적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학 전공자가 지닌 산업적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각계 주요 인사들의 제언도 잇따랐다.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고등교육기관과 산업 현장 간 연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수백 개의 한국 기업들은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의 기업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통섭형 인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학 전공자들은 산업 현장의 실무적 요구와 양국 간 언어·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는 최적의 자산이자 핵심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자카르타 사무소장 역시 "한국학 전공자와 동문들은 양국 국민을 실질적으로 잇는 '살아있는 가교(living bridges)'로서 매우 전략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단순한 문화적 호감을 넘어 교육, 경제, 비즈니스, 첨단 기술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심화·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학 전공자들의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 의식에 그치지 않고 최신 연구 성과와 교육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전국 학술 세미나'로 연계되어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언어학, 교수법 및 번역'을 주제로 파딜라 하스비(Fadhila Hasby) 박사의 좌장 아래 최신 기술 융합 사례가 다뤄졌다. 가자마다 대학교(UGM) 아크마드 리오 데시아르(Achmad Rio Dessiar) 박사가 번역 기술 내 인공지능(AI)의 급진적 발전을 발표했으며, 국립나시오날대학교(UNAS) 피트리 메우티아(Fitri Meutia) 박사는 생성형 AI(ChatGPT, Gemini 등)를 활용한 중급 한국어 학습 통합 모델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 리사 트리알리산티(Risa Triarisanti) 교수는 지난 11년간 추진된 한국어 교육 성과와 기관 간 파트너십 사례를 공유했다.

로스티네우(Rostineu) 박사가 좌장을 맡은 제2세션 '한국학 연구'에서는 UI 사회정치대학(FISIP) 게타르 하티(Getar Hati) 박사가 한-인도네시아 커넥션(KIC) 플랫폼 구축 성과를 발표했다. 비누스대학교(BINUS) 디안 노비크리스나(Dian Novikrisna) 교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심층 분석했으며, 에위스 술라스트리 박사는 지속 가능한 한국학 발전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십 확장 전략을 제언했다.

학술적 논의와 더불어 마련된 동문 토크쇼는 한국학 전공의 실질적 효용성과 직업적 확장성을 입증하는 자리였다. 에바 라티파(Eva Latifah)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학 졸업생의 발자취: 캠퍼스에서 전문직업 세계로" 세션에는 정·재계 및 전문직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이 연사로 나섰다.

2006학번 실비 피트리 아유(Silvi Fitri Ayu)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제2위원회 전문위원 겸 예금보험공사(LPS) 감독위원회 정책분석관을 필두로, 번역 전문 기업 TNT Translation을 창업한 타니아 트리푸트리(Tania Triputri, 2009학번) 대표,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 VIUUM Eyewear에서 비즈니스 서포트 총괄을 역임하고 있는 바니아 이스타미트라(Vania Istamitra, 2019학번) 등이 패널로 참여해 전문 직업 세계로의 도약 경험을 공유했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인문학적 소양과 어학 능력이 실무 역량과 결합될 때 공공 정책, 외교, 창업, 비즈니스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다학제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증명했다.

20년 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출발한 UI 한국어문학과는 이제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축이자, 양국의 번영과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전문 인재 배출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학계와 산업계를 넘나드는 이들의 확고한 교육 기반은 향후 한-인도네시아 미래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인적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서 열점 2,671개 급증… 대규모 산불 우려에 '비상'
남수마트라주에만 1,583개 집중… 리아우주 등 대기질 '매우 나쁨' 기록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전역에서 산림 및 토지 화재(karhutla)의 전조로 여겨지는 열점(hotspot)이 급증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4일 오전 7시(서부인도네시아표준시 기준) 집계 결과, 수마트라섬 내 9개 주에 걸쳐 총 2,671개의 열점이 탐지되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측된 이번 수치는 대규모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시사한다.

BMKG 페칸바루 관측소의 푸트리 산티 시레가르 예보관에 따르면, 남수마트라주에서만 전체의 과반이 넘는 1,583개의 열점이 확인돼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잠비주 330개, 방카블리퉁주 312개, 리아우주 234개, 람풍주 115개 순으로 다수의 열점이 집계됐다. 이 밖에도 벵쿨루주(39개), 리아우제도주(29개), 서수마트라주(21개), 북수마트라주(8개) 등에서도 열점이 확인됐다.

특히 주요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리아우주의 경우, 인드라기리 힐리르현(79개)을 비롯해 인드라기리 훌루현(42개), 벵칼리스현(35개) 등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열점이 관측되고 있다.

열점 급증에 따른 연무(Haze) 현상으로 인근 도시의 대기질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페칸바루시의 가시거리는 연기로 인해 약 5km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새벽과 아침 사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호흡기 질환 등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리아우주 지방재난관리청(BPBD)은 벵칼리스현, 인드라기리 훌루현, 인드라기리 힐리르현 등 주요 발화 지점에 인력을 투입해 총력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화재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야외 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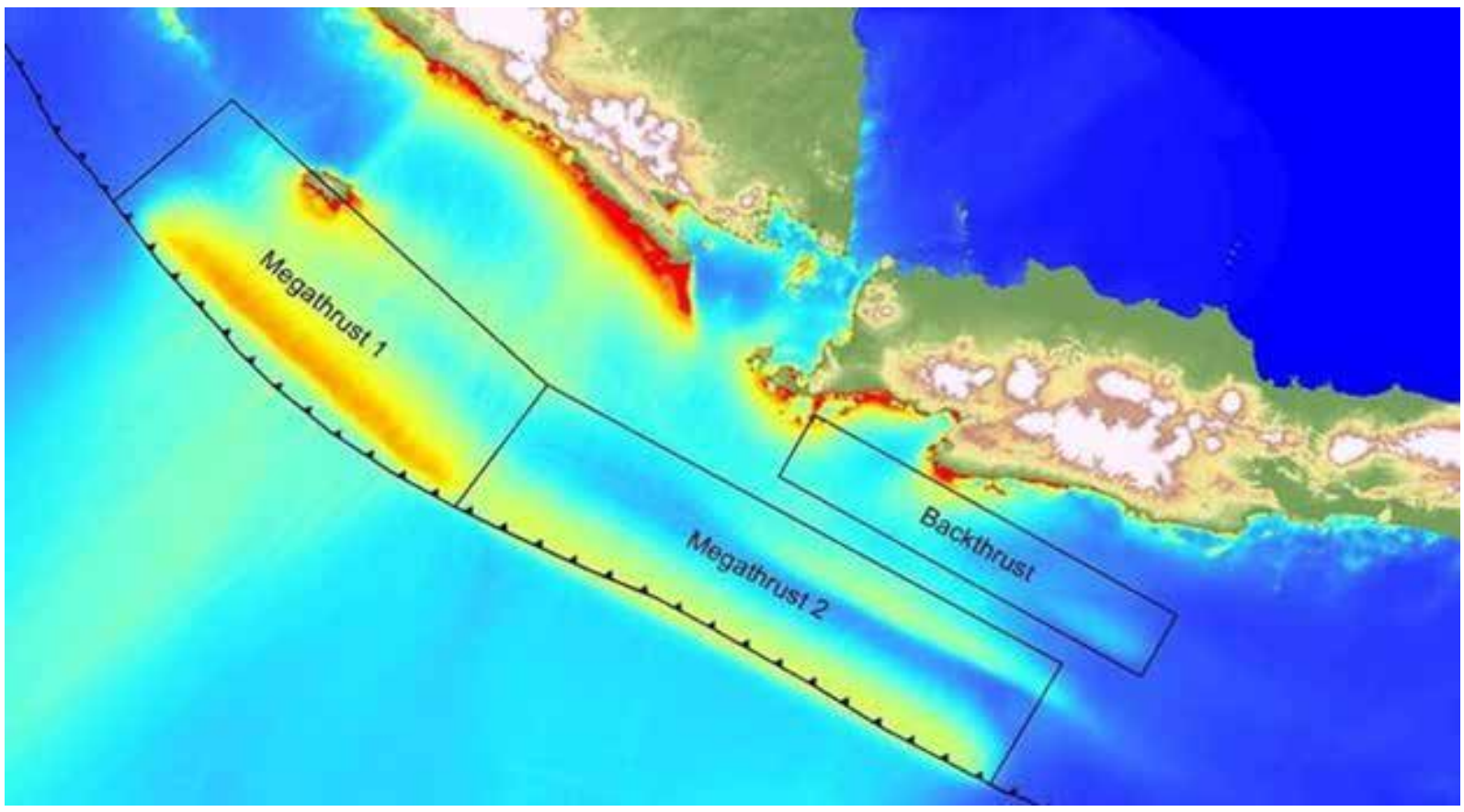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활성단층·메가스러스트의 협공…
자카르타·서자바 지진 공포에 방재 비상

- 9월 초 찌안주르 · 보고르 · 남부 자바 연쇄 지진… 지각 내 응력 축적 가시화
- 육상 '바리비스 · 시만디리 · 렘방' 단층과 해양 '순다해협 메가스러스트(M8.7)' 위험 공존
- 전문가 “단기 예측은 불가하나 구조적 위험 상존… 초고층 · 밀집지 내진 감사 및 대비 시급”



남부 자바와 수마트라의 메가트러스트 구역 구간. (자료: 저널 On the potential for megathrust earthquakes and tsunamis off the southern coast of West Java and southeast Sumatra,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배후 경제권인 서자바 지역에 대규모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자바섬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지진 활동이 잇따르면서, 대도시권 바로 밑을 관통하는 육상 활성단층망과 자바 남부 해역의 초대형 ‘메가스러스트(Megathrust·해구형 역단층)’ 판 경계대가 결합해 복합적인 재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재 당국이 최고 수준인 '비상 1단계'에 준하는 대비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다만 재난 당국과 지질 전문가들은 이번 경계 태세가 '특정 시점의 지진 발생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현대 과학 기술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과 정확한 위치, 규모를 사전에 완벽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상기후지구물리청(BMKG) 역시 메가스러스트 위험성 경고는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다는 조기경보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방재 인프라 확충과 구조적 취약점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 2026년 9월 초, 자바섬 일대를 뒤흔든 연쇄 단층 활동

위기감이 다시 고조된 배경에는 2026년 9월 초 연쇄적으로 발생한 지각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첫 신호는 9월 1일 화요일 17시 53분 서자바 찌안주르군에서 감지됐다. 활성단층에 기인한 규모(M) 4.3의 천발(얕은) 지진(진앙 남위 6.91도, 동경 107.10도)이 발생해 수카부미, 반둥, 수카라자는 물론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 주민들까지 뚜렷한 진동을 느꼈다.

이어 9월 3일 낮에는 서자바 보고르시 인근에서 1분 간격으로 규모 2.3의 지진이 연속으로 관측됐다. 두 번째 지진(남위 6.74도, 동경 106.60도)은 보고르 남서쪽 27km, 심도 6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수카분다방 등지에서 실내 가벼운 물체가 흔들리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MMI) II 수준의 흔들림이 확인됐다.

하루 뒤인 9월 4일 금요일에는 자바 남부 해역에서 규모 5.3의 중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드는 섭입대 작용에 의해 일어난 이 지진은 쓰나미를 유발하지는 않았으나, 자바 해구 일대의 구조적 응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M5.3 지진이 초대형 메가스러스트의 직간접적 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텍토닉 활동의 주기성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한다.

■ "메가스러스트만이 아니다"… 도심 관통하는 육상 활성단층의 치명적 위협

인도네시아 재난전문가협회(IABI)의 다르요노 위원은 이번 연쇄 지진이 서자바와 자카르타가 직면한 지진학적 환경의 복잡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9월 3일 보고르 지진은 이틀 전 찌안주르 지진과 지질학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아위 벵꼬끄 단층 구간과 찬띠엔-무아라 단층 구간의 연쇄 반응에 의해 유발됐다.

다르요노 위원은 "자카르타와 서자바의 위협은 단일 진원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거대한 판구조적 관점에서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은 연간 수 센티미터의 속도로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며 광범위한 텍토닉 압축력을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 에너지는 해구뿐만 아니라 내륙의 복잡한 활성단층망으로 분산·축적된다.

내륙 단층 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는 바리비스 단층, 렘방 단층, 시만디리 단층 등이 꼽힌다. 다르요노 위원은 "반둥 북쪽에 위치한 렘방 단층은 연간 3~6mm의 미끄러짐율(slip rate)을 보이며 최대 M6.8 규모의 강진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도 "더 심각한 위협은 바리비스 단층"이라고 지목했다. 자카르타 남부를 스쳐 브카시, 쁘루와까르따, 수방, 끄닝안, 쩨르본까지 연결되는 바리비스 단층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인구 밀도와 국가 기간 인프라가 가장 조밀하게 집중된 메가폴리스를 직접 관통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쿠중안, 끌루인이-딴중사리, 치빠밍끼스, 남가루뜨(Garsela) 단층 등도 내륙 진동을 증폭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된다.

이 중 100km에 걸쳐 뻗어 있는 시만디리 단층에 대한 경계도 높다. 국가연구혁신청(BRIN) 지질재난연구센터의 푸뜨리 나타리 라뜨나 연구원은 시만디리 단층을 운동 역학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인 복합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선행 연구(빠자자란대, 2017)에 따르면 이 단층은 중기 에오세 후기 말 형성된 50도 이상의 경사를 지닌 역단층 및 정단층 시스템이다. 가자마다대(2018)의 분석에서도 북동-남서 주향의 이 단층이 펠라부한라뚜(1900년), 빠달라랑(1910년), 꽁광(1948년), 딴중사리(1972년), 찌바닥(1973년), 간다솔리(1982년), 수카부미(2001년) 등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천발 지진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온 진원지임이 확인된 바 있다.

■ 침묵하는 거인 '순다해협 메가스러스트'… M8.7 파열 시 수도권 마비 우려

육상 천발 단층이 고주파 진동으로 도심 건축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면, 남부 해양의 섭입대는 초거대 지진과 쓰나미라는 미증유의 복합 재난 시나리오를 안고 있다.

다르요노 위원은 "남부 해역에 위치한 셀라트순다(순다해협) 메가스러스트 구역은 지진 에너지가 수백 년간 방출되지 않고 응축된 '지진 공백기(seismic gap)'에 해당한다"며 "이 구역의 판 간 경계가 일시에 파열될 경우 최대 규모 M8.7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초대형 해양 지진이 현실화될 경우,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치는 것은 물론 저주파 특성을 지닌 '장주기 지반운동(long-period ground motion)'이 내륙 깊숙이 전파된다. 연약 지반 위에 세워진 자카르타와 서자바의 초고층 빌딩, 대형 교량 등 현대식 구조물은 장주기 지반운동과 공진 현상을 일으켜 치명적인 구조적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비상 1단계 논의보다 실질적 방재 체계 구축 선행돼야"

전문가들은 '비상 1단계 선포'와 같은 행정적 규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장 중심의 철저한 방재 대비 태세라고 입을 모은다. 자연현상인 지각 이동을 막을 수는 없으나, 인재(人災)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는 사전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르요노 위원은 과거 국내외 지진 참사에서 확인된 사망 원인의 대부분이 '건축물 붕괴'에 기인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존 도심 인프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내진 기준 재평가와 내진 보강 감사 △판 내부(intraslab) 지진원까지 포괄하는 고정밀 지진 위험도 지도(Hazard Map)의 조속한 갱신 △건물 외벽 낙하물 및 비구조재 탈락 등 2차 피해에 대비한 도시민 행동 매뉴얼 보급과 체계적 훈련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자카르타와 서자바는 지질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단층망의 교차로'에 서 있다. 미증유의 메가스러스트 잠재력과 도심 직하형 단층의 상시적 위협 속에서, 막연한 공포를 넘어선 정밀한 과학적 진단과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의 총동원이 요구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산불 연기 마시고 쓰러졌던 오랑우탄 '슴푸르나' 끝내 폐사… 부검서 폐 울혈 확인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주에서 짙은 산불 연기에 갇혀 위독한 상태로 구조됐던 성체 수컷 오랑우탄 '슴푸르나(Sempurna)'가 당국의 응급 처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서칼리만탄 천연자원보전청(BKSDA)은 지난달 30일 크타팡군 마탄 힐리르 우타라구의 한 야자유 농장 배수로에서 구조된 오랑우탄 슴푸르나가 구조 당일 오후 3시 20분경 최종 폐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슴푸르나는 짙은 화재 연기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으며,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심각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BKSDA와 국제 동물보호단체 인도네시아재단(YIARI) 구조팀은 현장에서 산소 요법과 정맥 수액 투여 등 응급 처치를 진행한 뒤 재활센터로 긴급 이송했다. 그러나 이송 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호흡이 얕아졌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CPR)에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일 진행된 부검에서는 폐를 비롯해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 전반에서 심각한 병리학적 병변이 확인됐다. 특히 양측 폐엽의 후복측 부위를 중심으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울혈(congestion)과 폐 조직이 허탈되는 부분 무기폐(atelectasis)가 집중적으로 관찰됐다.

당국은 슴푸르나가 고농도의 산불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급성 저산소증을 겪었고, 이것이 심혈관계 기능 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치료를 담당했던 YIARI 소속 아드난 갈리 수의사는 "슴푸르나는 서식지 화재로 발생한 극심한 연기를 흡입해 기도와 폐에 심각한 자극을 받은 상태였다"며 "폐 손상으로 가스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유발된 급성 저산소증이 치명타가 됐다"고 설명했다.

무를란 다메리아 파네 서칼리만탄 BKSDA 청장은 "슴푸르나를 살려내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산불 연기가 인근 야생동물의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슴푸르나'라는 이름의 오랑우탄이 산불 연기 노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채 발견된 후 폐사했다. (Foto: Istimewa)

슴푸르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에서 산불 피해로 구조된 일곱 번째 오랑우탄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서 탈진하거나 다친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포획하거나 접근하지 말고 즉시 보전청 직통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KCIC, 화산재 확산 속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우시' 정상 운행… "안전 관리 총력"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 화산의 분화로 화산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 '우시(Whoosh)'가 전 구간에서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 컨소시엄(이하 KCIC)은 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화산재 확산으로 인한 고속철도 차량 및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에바 차이루니사 KCIC 대외협력본부장은 "운전, 안전, 인프라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다층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운행을 제한할 만한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우시는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정규 일정대로 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KCIC는 여객 열차 투입에 앞서 점검용 확인 열차(KA Konfirmasi)를 양방향에 사전 투입해 궤도와 신호 상태를 점검했다. 운전관제센터(OCC)의 점검 결과 가공전차선(OCS), 전력 공급, 분기기 등 주요 인프라가 모두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사들이 보고한 운행 구간의 시야 역시 안전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차량에는 시야 확보를 위한 특수 와이퍼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다.

특히 관제 시스템은 노선 내 이상 징후 감지 시 관제센터에 즉시 경보를 울리고 열차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정밀 감시는 고가 82.7km, 지상 42.78km, 터널 16.82km 등 총 142.3km에 달하는 전 구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화산재에 노출되기 쉬운 지상 개활지를 중심으로 공기 흡입 필터, 집전장치(팬터그래프), 절연 설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Kereta Api Cepat Whoosh. (Foto: Istimewa)

아울러 KCIC는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화산재 위험 평가'를 진행 중이며, 기상 악화 시 추가적인 감속 또는 운행 조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에바 본부장은 "역사 내 개방 구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는 등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운행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뻐르타미나·쉘·비보·BP, 비보조 연료 가격 일제히 조정…
디젤·고옥탄가 유류 중심 상승세

2026년 9월 7일 기준, 인도네시아 주요 주유소의 비보조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9월 초 단행된 가격 조정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 석유회사인 PT Pertamina를 비롯해 쉘(Shell Indonesia), BP-AKR, 비보(Vivo Energy Indonesia)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제품군별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뻐르타미나는 이달 초 일부 비보조 연료의 가격을 인상했다. 주력 제품인 옥탄가(RON) 92 등급의 '페르타막스(Pertamax)'는 자카르타 및 수도권 지역에서 리터당 15,950루피아로 동결되었으나, 고급 유류 제품군인 뻐르타막스 터보(Pertamax Turbo)와 친환경 연료인 뻐르타막스 그린 95(Pertamax Green 95), 경유 제품군인 덱스라이트(Dexlite), 뻐르타미나 덱스(Pertamina Dex) 등은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민간 정유사들 역시 9월 들어 디젤 및 고급 휘발유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BP-AKR은 고급 휘발유인 'BP 얼티밋(BP Ultimate)'을 종전 리터당 16,760루피아에서 19,330루피아로 2,570루피아 인상했다. 'BP 얼티밋 디젤' 또한 지난달 21,910루피아에서 25,420루피아로 크게 올랐다. 반면 RON 92 제품인 'BP 92'는 리터당 16,130루피아를 유지했다.

쉘 역시 디젤 제품군을 중심으로 조정을 거쳤다. '쉘 V-파워 디젤(Shell V-Power Diesel)'은 전달(21,910루피아) 대비 오른 가격대를 형성했다. 다만 자카르타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솔린 라인업(Shell Super, Shell V-Power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비보 주유소는 RON 92 제품인 '레보 92(Revvo 92)'를 리터당 16,130루피아로 동결한 가운데, 디젤 프리머스(Diesel Primus)는 25,420루피아로 책정했다.

2026년 9월 7일 현재 자카르타 수도권(Jabodetabek) 기준 각 사의 주요 유류 판매가는 다음과 같다.

■ **페르타미나 (DKI 자카르타 기준)**
- 뻐르탈라이트(Pertalite): 리터당 10,000루피아 (보조금)
- 보조금 경유(Solar Subsidi): 리터당 6,800루피아 (보조금)
- 뻐르타막스(Pertamax, RON 92): 리터당 15,950루피아
- 뻐르타막스 그린(Pertamax Green, RON 95): 리터당 19,150루피아
- 뻐르타막스 터보(Pertamax Turbo, RON 98): 리터당 19,600루피아
- 덱스라이트(Dexlite, CN 51): 리터당 23,700루피아
- 뻐르타미나 덱스(Pertamina Dex, CN 53): 리터당 25,200루피아

■ **BP-AKR (수도권 및 동부 자바 기준)**
- BP 92: 리터당 16,130루피아
- BP 얼티밋(BP Ultimate): 리터당 19,330루피아
- BP 얼티밋 디젤(BP Ultimate Diesel): 리터당 25,420루피아

■ **쉘 (Shell)**
- 쉘 V-파워 디젤(Shell V-Power Diesel): 리터당 24,420루피아

(※ Shell Super, Shell V-Power, Shell V-Power Nitro+ 등 휘발유 제품군은 현재 미제공)

■ **비보 (Vivo)**
- 레보 92(Revvo 92): 리터당 16,130루피아
- 레보 95(Revvo 95): 리터당 19,330루피아
- 디젤 프리머스(Diesel Primus): 리터당 25,420루피아



Sumber Foto: Instagram @idx_channel

한편, 업계 관계자는 "상기 가격은 자카르타 및 수도권 기준이며, 지역별 유류세 및 물류비용 차이에 따라 도서 지역 등 타 지방에서는 표시 가격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 여파…
KN95 마스크 품귀 현상에 가격 '최대 10배' 폭등

- 화산재 수도권 및 인근 지역 확산에 방진 마스크 수요 폭증
- 온라인 상거래서 일방적 '주문 취소 후 가격 인상' 꼼수 기승
- 보건당국, 호흡기 보호 위한 마스크 착용 당부 속 편의점·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도 품절 사태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 산의 분화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화산재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근 주요 지역을 뒤덮으면서, 호흡기 보호용 KN95 마스크를 둘러싼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현지 언론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분화로 인한 화산재 구름은 자카르타 특별수도지역(DKI 자카르타)을 포함해 반텐, 서자바, 람풍, 벵쿨루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따라 유해 미립자 차단 효과가 뛰어난 KN95 규격 마스크를 확보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요 급증을 틈타 일부 온라인 유통업자들이 마스크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하거나 매점매석에 준하는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9월 7일(월), 소셜미디어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마스크를 주문·결제했음에도 판매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등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서자바주 데폭(Depok)에 거주하는 타마라 씨는 가족들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당 1,650루피아(한화 약 140원)에 KN95 마스크를 결제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잠시 후 확인한 해당 상품의 가격은 개당 16,500루피아(한화 약 1,400원)로 표기돼 있었다. 불과 수 분 만에 가격이 10배(900%)나 폭등한 것이다. 타마라 씨는 "결국 다른 판매자를 찾아 10개들이 팩을 약 17,000루피아, 5개들이 예비용을 11,700루피아에 간신히 구매할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소비자 역시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화산재와 연기에 취약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화산재 소식을 듣자마자 전자상거래 앱을 통해 마스크 3팩을 주문하려 했으나, 결제 직전 상품 정보 변경 알림이 떴다"며 "확인 결과 마스크 가격이 최초 확인 가격 대비 거의 100% 상승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주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쇼피(Shopee)와 틱톡숍(TikTok Shop) 등을 확인한 결과, 판매처마다 가격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피에서는 KN95 마스크 5개 들이가 약 37,000루피아, 10개 들이는 104,405루피아, 12개들이는 169,200루피아에 거래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틱톡숍 역시 10개들이 제품이 29,848루피아부터 최대 109,900루피아까지 제시되는가 하면, 2개 묶음이 37,970루피아에 등록되는 등 시장 가격 기준이 사실상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마스크 재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현지 대형 편의점 체인인 알파마트(Alfamart)의 매장 직원 안디(31) 씨는 "어제부터 마스크 제품군이 전량 매진돼 현재 매장 내 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 매일 제품이 입고되는 물류 시스템이지만, 어제와 오늘 본사로부터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품귀 현상의 이면에는 보건당국의 긴급 착용 권고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Menkes)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장관은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대기 중 화산재 노출 위험성을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실외 활동 자제를 강력히 당부했다.

부디 장관은 "화산재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의 창문과 문을 밀폐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 화산재 입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KN-95 규격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만약 해당 규격을 구하기 어렵다면 일반 마스크나 기타 가림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을 악용한 유통 교란 행위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공중보건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국 차원의 즉각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유통망 안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8일하루 새 4차례 분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8일부터 수카르노하타 공항 운영이 다시 가동된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위치한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 화산이 8일 낮 또다시 분화했다. 이날 새벽부터 이어진 분화 활동으로 하루 동안에만 총 4차례의 분출이 관측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당국은 쓰나미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34분(현지시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분화가 발생해 약 17초간 지속됐다. 마그마 인도네시아(MAGMA Indonesia)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지진계 최대 진폭은 55mm에 달했으나, 분연주(화산 분출 연기 기둥)의 높이는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았다.

이로써 화산은 이날 새벽 5시 8분(최대 진폭 47mm, 지속 시간 15초)의 첫 분화를 시작으로 오전 5시 34분, 오전 7시 49분에 이어 낮까지 총 네 차례 분화를 기록했다. 모든 분화는 육안 관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고 짙은 안개 등에 가려져 있었으나, 관측 장비에는 뚜렷한 진동이 감지됐다.

인도네시아 지질국(Badan Geologi)은 화산재 확산에 따른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지질국은 "화산재 입자가 매우 미세해 대기 상층부로 상승한 뒤 풍향과 풍속에 따라 원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분화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화산재가 낙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외출 시 호흡기와 눈 보호를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경보 단계는 4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3단계 '주의(Siaga)'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화구 중심부 반경 3km 이내 지역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Gunung Anak Krakatau (Foto: Dok. Istimewa)

한편, 지난 2018년 대규모 화산체 붕괴로 발생했던 참혹한 쓰나미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당국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질국은 "2018년 12월 분화 참사 이후 새롭게 형성된 현재의 화산체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일련의 분화 활동이 해저 산사태나 쓰나미를 촉발할 정도의 대규모 붕괴를 일으킬 잠재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반경 3km의 안전거리만 준수한다면 주민들의 추가 대피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지난 4일 밤 11시 7분 대규모 본 분화를 시작으로 용암류 분출과 대규모 화산재 기둥을 형성해 인근 일부 공항의 운항 차질을 초래한 바 있다. 당국은 화산의 다각적인 모니터링 매개변수를 종합적으로 감시하며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시〉

다나우 토바 (호수)



김준규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토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그 옛날 칠만 사천 년
무고한 천지에 날아온 기별
봉인된 바위 열리고
천지를 가르는 억겁의 포효
하늘이 울고 땅도 울었다
거친 물의 시작은
저려오는 아픔 딛고
흐르고 흘러 병풍처럼
찬란한 산맥이 되고
들꽃에 매달린
영롱한 이슬이 되어
맑은 물
낮은 곳으로 흘러
바딱의 영혼이 깨어나는 날
아!
물안개 피어나는
토바 호수가 되었다

시작 노트: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경외감과 영감을 주지만, 한편으로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다. ‘토바’ 호수 또한 지금의 웅장한 모습으로 있기까지 지각변동과 화산 활동 등 무수한 자연현상을 딛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으리라! 그 처음은 어떠했을까? “거친 물의 시작은/ 저려오는 아픔 딛고/ 흐르고 흘러 병풍처럼 /찬란한 산맥이 되”기까지 모습을 그려본다. “바딱의 영혼이 깨어나는 날”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글: 김주명(시인)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